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12 2019

VOL. 282

haninnewsinni@gmail.com

since 1996 한인뉴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Fold

www.samsung.com/id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 | Samsung Indonesia | SamsungID | Samsung_ID | Samsung Indonesia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2019. 11. 27 스나얀 플라자

contents

2019. 12. 통권 282호

05 호기심 5 <편집국>
08 논설위원 칼럼-'한강의 기적을 배우다' <김문환>
12 신성철 칼럼-한국 기업의 인니 진출사
14 '청춘30년을 인니에서 보낸 미쓰떠르 코레아' <조연숙>
16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이슬람 문화 <이영미>
20 이해창 경제칼럼-가속되는 한.인니 밀월시대
22 동포재단과의 간담회
23 땅그랑 반튼 한인회10주년 기념식
24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식
25 한 아세안 30주년 기념 리셉션
26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현대사] 26
30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34 자카르타 맛집 탐방 - Patio Venue <주윤지>
38 행복에세이 특별 칼럼 <한상재>
40 JIKS 소식
42 나 바 수 <민선희>
46 건강칼럼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50 오랜 시간 흘러서 만남 오늘 <홍윤경>
53 OKTA 김종헌회장 취임식
54 독도 합동홍보단 1주년 기념식
55 재외국민선거
56 제 6회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전주영>
57 A STAR IS BORN <편집국>
58 상속법3 (280)
61 코린도, Padmamitra Awards 수상
62 제10회 인도네시아이야기 문학상시상식
64 2019 인도네시아문학 제6집 출간 기념식
65 이영미작가, 생태동화 공모전 대상수상
66 인도네시아 박물관 헤리티지 <이수진>
69 Pancoran 사람들 No.12
70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12 2019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쿼시계의 대모” 한미혜 선수를 만나다

“스쿼시계의 대모”, “최고령 스쿼시 선수”, “열정으로 나이의 장벽을 깨트린 여인”, “전국에 응원단을 몰고 다니는 인기스타”

한 분야의 ‘최고’에 도전한 선수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8일 한인뉴스 편집팀은 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고령 스쿼시 선수 한미혜 씨(58세)를 만났다.

2019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스쿼시 동메달을 목에 건 한미혜 선수가 말한다.

“40대 중반에 한국에서 스쿼시를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로 와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중 인터넷에 올라온 전국체전 스쿼시 선수 모집 공고를 보았어요. 그렇게 찾아간 협회에서 ‘얼굴만 봐도 금메달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 색깔을 바꾸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저는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는 성격입니다.”

한국 스쿼시 발전을 위해 15년을 헌신한 그는 현재 본인을 대신할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다. 스쿼시 감독과 코치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열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그는 겸손하게 말한다.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요? 혼자 코트를 찾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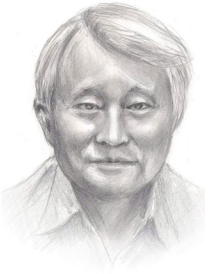
그는 이달 열린 제9회 재인니 교민연합 배드민턴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두었다. 교민 배드민턴 대회에서 남자 조로 편성이 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녔다. 중학교 때부터 펜싱과 테니스를 시작해 골프에서 홀인원을 3번이나 할 만큼 실력과 운을 갖추었다.

그는 현재 한국 종합예술원 소속 시니어 패션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자카르타로 돌아오기 전 서울에서 열린 자유복 패션쇼 무대에 섰어요. 1월에는 상해, 6월에는 다낭의 한복 패션쇼에도 참석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보다 자신이 타고난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대 콘셉에 맞추어 액세서리와 신발을 챙겨갈 만큼 센스 있는 열정녀 한미혜. 그는 이미 도전하는 모든 분야의 ‘프로’이다.

《논설위원 칼럼》
<베니장군과 한인사회 #5>



김문환/논설위원

'한강의 기적'을 배우다

양국간 대결정책 양상이 수까르노 대통령과 라흐만 수상간의 개인적인 라이벌 의식에서 확대되어 왔음을 인식한 앙국 군부의 참모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선(秘線)을 대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의 외무부차관이며 국가정보원장인 가잘리(Ghazalie)와 국방부장관인 압둘 라작(Abdul Razak)이 팔 걷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1964년 중반 가잘리 정보원장은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홍콩에 들른 아흐맛 야니(Achmad Yani) 인도네시아 육군참모총장에게 민간인 신분의 데스 알위(Des Alwi)를 중재인으로 내세워 홍콩에서 협상을 제의하였다. 데스 알위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수딴 샤흐릴(Sutan Sjahrir) 전수상의 양자(養子)로 수까르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니 장군은 이 협상제안을 수까르노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만 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야니 장군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협상제안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진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 말레이시아 대결정책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수까르노 대통령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반년이 흐른 1965년 초, 핍박한 국내 경제사정과 맞물려 불리한 전황을 보고하는 육군본부 정보보좌관 수껜드로(Soekendro) 대령의 브리핑을 근거로 야니 총장은 국가의 체면을 살리면서 대결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심한다. 협상대표로 지명된 국방부 정보참모부장 빠르만(S. Parman) 준장의 정보분석 결과, 말레이시아 측의 진의가 파악되자 협상단의 지위가 격상되어 수하르또 소장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었다. 수하르또 장군은 즉시 실무협상팀을 가동시켜 팀장인 알리 무르또뽀 중령을 비롯하여 베니 소령, 람리 중령 등의 실무진이 본격적으로 실무협상에 임하기 시작한다. 1965년 중반 데스 알위는 마침 방콕을 방문 중인 압둘 라작 국방부장관의 호텔방에서 베니 소령과의 첫 만남을 극비로 주선한다. 이 자리에서 말레이시아는 진심으로 국교정상화를 원하며 협상이 타결되면 말레이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포로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작

장관은 베니와의 첫 만남에 대해 그의 보좌관들에게 극찬할 정도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돌파구가 열리면서 베니는 데스 알위와 함께 말레이시아로 비밀리에 잠입하였다. 영국군에게 알려지면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기전에 들어가기 위해 숙소도 마련하여 연락사무소로 운영하였다. 다음 비밀회담을 10월 첫 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기로 일정을 잡은 얼마 후 9.30 대정변이 발발하여 야니 총장, 빠르만 장군 등 6명의 육군 수뇌부가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 공백기간 동안에도 베니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면서 계속 본국과의 교량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수하르또 장군이 실권을 잡은 시점인 동년 12월이 되어서야 알리, 단 모곳(Daan Mogot), 윌리(Willy) 등 협상 재개팀이 도착하였다.

1964년 5월 인도네시아 협상대표단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대결종식을 위한 협상에 임한다. 왼쪽부터 Tan Sri Ghazalie 국가정보원장(말), 알리 무르또뽀 장군(인니), Abdul Razak 국방장관(말), 베니 무르다니 중령(인니), Tun Ismail 내무장관(말), Daan Mogot(인니)

이 협상팀이 파견되기까지는 양국 국가원수들에게도 비밀로 부쳐진 채 진행되었다. 그때서야 극비 협상팀에 베니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까르노 대통령은 의외라는 듯이 "당신네들, 이제는 베니를 외교관으로까지 만들고 있군." 이라고 간단히 코멘트하였다. 한편 9.30정변 이후 수까르노의 권한은 급격히 상실되어 갔으며 급기야 1966년 3월 11일 치안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수하르또 장군에게 위임한다는 소위 '3월 11일의 명령서(SUPERSEMAR)' 가 발급되면서 이젠 더 이상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에 수까르노의 개입은 불필요하게 되어 수하르또가 지휘하는 군부에 모든 주도권이 넘어갔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베니 총영사와 박정희 대통령

동년 5월 인도네시아 공식대표단인 알리, 베니, 단 모곳 등이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여 가잘리, 라작 등을 만나 인도네시아 군사사절단을 상호 방문케 하자는 베니의 제안에 합의를 보았고 이틀 후에 양국의 외무장관인 아담 말릭(Adam Malik)과 압둘 라작이 방콕에서 후속회담을 열게 된다. 5월 25일 인도네시아 작전사령부의 수뇌부를 태운 공군 수송기가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다. 부사령관인 샤아프(Syaaf) 해군소장을 수석대표로 알리 중령, 요가 대령, 께말 이드리스(Kemal Idris) 준장, 쪼끄로쁘라놀로(Tjokropranolo) 준장, 소피아르 대령 등이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압둘 라흐만 수상 별장까지 찾아가 대결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다. 수상 별장에서의 회담에 만족한 라흐만 수상은 즉석에서 양국의 협상팀 전원에게 기념선물로 로렉스 시계를 한 개씩 하사하는 은사를 베풀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6월 중순 베니는 가잘리 국가정보원장을 안내하여 수하르또 장군과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리가 라흐만 수상을 재 방문한 직후인 1966년 8월 11일 양국간의 외교 의정서인 '자카르타 협정서(Jakarta Accord)'가 서명되어 양국간의 불필요했던 소모전은 종식되어 국교가 정상화된다. 한편 협상기간 동안 정부 연락사무소장(Chief Liaison Officer) 자격으로 맹활약을 한 베니는 정식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주 말레이시아 대표부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여 본의 아니게 외교관 생활에 입문하여 1974년 주 한국 대리대사를 끝으로 9년 간의 외도를 마감하게 된다.

베니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대표부 3년, 총영사 2년 등 총 5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 중 그곳 정계의 요인들과 돈독한 인맥을 형성하면서 외교관으로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며 무남독녀 리아(Ria)의 재롱을 보는 사생활은 말 그대로 행복의 정점이었다. 1965년 9.30사태 이후 본국에서도 외무부 장관이 수반드리오(Subandrio)에서 아담 말릭(Adam Malik)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다. 1969년 말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인 수빠르조 루스탐(Supardjo Rustam)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베니 대령, 한국으로 부임하셔야겠습니다." 1971년 1월 중순 자카르타로 복귀한 베니는 알리 무르또뽀 장군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대통령 궁으로 올라가 전출신고를 하였다.

베니는 1970년 2월 중순 제2대 총영사로 서울에 부임하였고 가족은 한달 후 뒤따라 도착하였다. 그 당시 양국간에는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대령급이 공관장으로 상호 부임하였으나 북한과의 관계는 대사급 수교로 인해 거물급 인사가 부임하고 있었다. 베니 대령이 부임할 당시 주 인도네시아 한국 총영사로는 대령으로 예편한 이창희 총영사가 재직 중이었고 주 북한 인도네시아 대사로는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하르또노(Hartono) 중장이 재임하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임지로 부임하는 소장파 외교관, 그러나 수하르또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실세 외교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북한과는 비동맹운동을 계기로 오래 전부터 국교관계가 돈독하였지만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세계에 과시하기 시작하는 한국과는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면서 '한강의 기적' 을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산림개발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처음 진출하면서 물꼬가 트인 한국기업 유치활동도 중요한 임무였다. 한국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부임한 베니는 우선 가정교사를 채용하여 한국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다. 1973년 양국간 대사급 수교로 승격되면서 베니는 정식 대사가 부임할 때까지 대리대사직을 수행하며 그 역량을 발휘한다.

베니는 박대통령을 자주 찾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같은 군출신인 베니를 환대하였다. 캠퍼스에도 자주 들러 대학생들과의 대화시간도 자주 가져 대학의 초청강연이나 행사엔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외동딸 리아(Ria)를 외국인 학교에 보내려니 비싼 학비문제가 걸림돌이 되자 일단 학비가 싼 용산 미8군 영내 학교로 보내는 기지도 발휘하였다. 미8군 학교는 미군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으나 베니는 1년 반 기간의 미국 피교육생(US Industrial College Extension Course) 경력을 근거로 당시 가까이 지내던 주한 미국대사 필립 하빕(Philip Habib)의 추천서를 붙여 통과시켰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기와 산업별 유형(1)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기와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이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원목개발 기업인 코데코(남방개발)가 한국과 수교 이전인 1968년 인도네시아 진출한 것이 대한민국 해외진출 1호로 기록되었고, 한국-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1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현지 완성차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후반부터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한 배경에는 국내 경제개발에 필요한 목재·원유·석탄·사탕수수 등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1987년 이후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노사분규 이후, 섬유·봉제·신발·완구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등하자, 해외투자 자본의 성격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진적으로 전환된다. 2000년 이후 유통대기업, 금융, 제철, 타이어, 석유화학,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진출기업의 산업 유형도 중화학공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된다.

1968~1972년: 자원확보형 투자

1968년 코데코가 남부 깔리만딴 지역의 산림개발을 위해 진출했고, 이듬해 코린도(당시 인니동화)도 같은 사업에 진출했다. 산림개발산업에는 1970년대 들어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됐다. 1970년에는 경남교역, 1973년에는 한니흥업이 진출했다. 1971년 조미료 제조업체 미원이 인도네시아 르나자야(PT Rena Jaya)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1973년 양국 정부의 진출 허가를 취득하여 미원인도네시아(PT Miwon Indonesia)를 설립하고 1975년부터 인공감미료(MSG) 생산을 시작했다.

1973~1986년: 건설, 무역업의 진출 및 자원확보형 투자

1973년 11월에는 한일시멘트가 철근생산 공장인 한일자야를 설립했다. 1974년 삼환건설이 동부깔리만딴 주 발릭빠빤 시에 유니온 석유회사의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본격화 된다.

인도네시아의 원목 수출 제한 정책이 발표된 이후, 다수의 기업이 원목 직접 개발을 위해 진출(1977년 아주임업, 1980년 림바 선경, 1983년 유림사리 등)한다. 하지만 초기에 진출한 코데코와 코린도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목 개발업체는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

1981년부터 코데코가 서부마두라(Madura Barat) 해상유전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상업적 가치를 지닌 유전 개발에는 실패했다. 다만 1993년 이후 가스 생산을 개시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다.

Bukit Soeharto in East Kalimantan Province

1988~1992년: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 투자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노사분규 이후, 섬유·봉제·신발·완구 등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이상의 업체들은 내수보다 수출전문 기업들로, 당시 한국에 부여해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대상국 지위를 상실한 것도 관련이 있다. 인도네시아로 사업체를 이전하면서 GSP 혜택을 유지하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수입규제 돌파를 위한 방편으로 기업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기술집약 산업인 전자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진출이 시작되어 오늘날 LG전자, 삼성전자, CJ 등과 같은 투자성공 사례를 낳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의 중소기업의 대량 진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폭력적인 조직관리 관행 등으로 현지 사회와의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던 노동집약적 중소 규모 제조업 분야는 현지 갈등의 심화와 1992년 중국과 베트남 등 신규 투자처가 부상하며 대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1994년 이후: 시장진출형 투자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간 10%(1994년의 경우, 인상률이 30%에 달함)를 상회하면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였고, 이에따라 해외투자 자본의 성격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전환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화학, 조립금속, 종이 등 '중간기술 제조업' 과 철강,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 분야와 플랜트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부문에도 대거 참여하기 시작했다. 1997년 경제위기와 1998년 민주화 과정(5월 폭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계 투자기업들이 현지에 잔류하여 사업체를 지켜낸 이후, 인도네시아 내의 한인사회는 더욱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참고문헌>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3,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40년사.
엄은희, 2013,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역사와 현재.
전제성, 유완또 외, 2013,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인도네시아 -투자와 이주를 통한 문화교류, 이매진.

“청춘 30년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낸 미스떠르 꼬레아”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한인사 편찬위원

[편집자주] 이 글은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을 위한 사료로, 한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첨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인뉴스를 비롯한 여러 한인 미디어에 게재합니다. 이 글 주제와 관련해 사진과 기록물 등 다양한 자료를 제보해주시면,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한인사에는 편집을 거친 사료를 전체 분량을 고려해 일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의 주역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인 남자를 부르는 명칭 중 하나가 ‘미쓰떠르’ (Mr.)입니다. 영어의 미스터에서 온 미스떠르는 주로 외국인 남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쓰였고, 한국사람을 ‘미스떠르 꼬레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글의 주인공은 1970년대 진출한 원목회사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이 봉제와 신발 업체들이 진출하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글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씁니다. *편의를 위해 실제 성이 아닌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인 김과 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해에 인도네시아에 왔고 일하는 분야도 달랐지만 비슷한 시대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중간관리자로 인도네시아 기업에 취업해 결혼하고 현지에서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이들은 지금 50~60대가 되어 일부는 퇴직 후 귀국했고,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기업의 중역이나 대표로 일하기도 하고 서비스와 유통 분야에서 자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이제 20~30대가 되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경험을 쓸 기회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전혀 상관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스떠르 김은 한국계 원목회사에 취업해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서단 수마트라 섬에서 시작해 자카르타 본사를 거쳐 인도네시아 최동단 빠뿌아에서 근무를 마쳤습니다. 미스떠르 리는 한국계 신발회사에 취업해서 1989년부터 자카르타 서부에 위치한 위성도시 땅그랑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스마랑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스떠르 김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이지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가는지 몰랐어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구별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외교부가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 나는 건 북한에 납북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과 소매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갑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으라는 내용입니다.

미스떠르 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숙했어요”

면접 보러 서울 사무소에 갔는데 면접을 마치고 식비와 차비를 주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던 때가 1월이었어요. 두꺼운 양복 입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가루다항공편으로 자카르타 할림공항에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양복 상의를 벗으니까, 반팔이더라구요. 저만 속까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비 오듯 땀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만해도 상급 직원들이 신입사원이나 사원가족들을 서울에서 인솔해서 국제선을 탔습니다. 사장이나 중역들이 신입사원의 입출국 수속을 직접 도와주면서 데리고

그림: Mulia –권미선

들어오는 일이 흔했습니다. 일부 회사는 환승하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며 사원가족들에게 별도로 여비를 챙겨주기도 했어요.

미스떠리 리 "아! 상하의 나라에 왔구나"

자카르타에 도착해 숙소에 심어진 야자수를 보니 상하의 나라에 온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첫 인도네시아어 강사(?)는 숙소에서 정원을 관리하던 남자 사환이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정원에 나가서 이것 저것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가리키며 물으면, 그가 답하는 말을 들으며 인도네시아어 단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스떠르 김 "비누를 뜻하는 '사분'이라는 단어가 경상도 사투리와 같더라구요."

인도네시아어를 모른다고 했더니, 숙소에 있는 직원이 인도네시아어 학습서를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책을 펼쳤는데, 비누를 'sabun' 이라고 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비누를 사분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친근감이 들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미스떠르 리 "5, 25, 100루피아짜리를 골고루 주며 돈을 익히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니, 제일 먼저 인도네시아 돈을 종류별로 주더니 익히라고 했습니다. 100루피아짜리 빨간색 도안의 지폐가 가장 큰 돈이고, 25루피아와 5루피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발행하지 않는 25루피아짜리가 신기했습니다.

미스떠르 리 "직장 분위기가 한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 온 첫 날 모든 직원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입사를 축하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받는다고 느꼈어요. 당시 자카르타 사무실에는 사장님부터 갓 입사한 저까지 20여명이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친밀한 분위기였죠. 신입사원이 와도 외부 손님이 와도 지역 근무자가 출장을 나와도 모든 직원이 회식을 했습니다. 한식당에 가면 주변에 앉은 손님들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미스떠르 김 "한끝 차이로 달라지는 뜻 때문에 놀림도 당했지요."

현지인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온 걸 눈치 채고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가리키며 "저건 뭐라고 해요?" 라고 묻기에 "룸뿟(rumput. 잔디)" 이라고 답했고, 그게 소문 나서 한동안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은 rambut(람붓)입니다. 외국인을 놀리기 좋은 또 다른 단어는 babi(돼지고기)와 bibi(아주머니), kelapa(야자)와 kepala(머리) 등이 있습니다. '끌라빠 무다' 를 마시면 갈증이 가시지만 '끄빨라 무다' 를 먹으면 '아이 머리' 를 먹는 식인종이 됩니다.

미스떠르 리 "수디르만은 조용하고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거리였습니다."

일요일에 자카르타 수디르만 거리를 걸었는데 조용하고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거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거리에 차가 드물어서 차량 통제 같은 조치가 없어도 그냥 걸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기억 나는 곳은 쭉쭉 뻗은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던 보고르 식물원입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를 보기 힘들었어요.

미스떠르 김 "수마트라도 좋았어요. 주택과 물만 빼면"

수마트라섬 부임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오지에 속하지만 저는 매우 좋았어요. 무엇보다 비 온 뒤 상쾌함이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드물게 현지인들이 개를 많이 키웠어요. 다만 나무로 지은 집과 흙탕물은 아쉬웠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자가발전기를 돌렸고, 밤 10시가 되면 발전기를 꺼서 무조건 자야 했고, 일찍 자니 일찍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돌리는 이동식 선풍기만 있었습니다.

미스떠르 김 "준비한 말을 해도 돌아오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공서나 은행에 가려면 전날 현지인과 늦게까지 인도네시아어로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공서에 가서 말을 하고 나면, 돌아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민망하지만 써달라고 해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현지인 직원과 해석해서 처리했습니다.

미스떠르 리 "자카르타에 근무하면서 결혼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느낌이 드니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도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혼인 동료들은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소개해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잘 몰라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거나 만나서 거절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미스떠르 리 "수시로 띠뿌스를 앓았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근무하는 동안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수시로 띠뿌스(열병)를 앓았습니다. 띠뿌스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고 재발이 많은 병입니다. 낮에 해고시킨 직원이 한밤중에 정글칼을 들고 숙소로 찾아와서 피한 적도 있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흥분한 현지 직원들 사이에 들어가서 진정시키고 협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밤에 오는 전화는 뭔가 급하게 해결해 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심지어 휴대전화를 발명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무리를 보면 가슴이 뛰고 공포감이 듭니다.

미스떠르 김 "인도네시아가 1998년부터 개혁기로 들어서면서 빠뿌아도 시끄러웠습니다."

수하르또 정권 말기에 빠뿌아에서 근무했습니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실각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등 인도네시아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당연히 빠뿌아도 지방자치가 시작됐습니다. 분리주의 운동과 함께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면서 치안이 불안해져서 한동안은 밤에 외출도 못했습니다.

미스떠르 김 "아이들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아내와 아이들만 자카르타로 보냈어요. 빠뿌아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힘들어도 빠뿌아에서 자카르타까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내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의논했고,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내와 아이들을 귀국시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수년 더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30여년 간 일했고, 그중 10여년을 빠뿌아에서 근무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지만, 한국에서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떠르 김 "휴가를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는 부대에 복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휴가를 갈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자카르타 도착해서 평소 잘 지내던 동료가 나와서 밥 사주며 이야기 들어주는데 많이 위로가 됐어요.

미스떠르 리 "시간은 인도네시아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갈 때는 아무 것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지금은 불안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나라로 여겨집니다. 199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선거로 뽑으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오히려 지방행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었다' 면, 개혁시기로 들어오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일부 되던 일도 어려워지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

미스떠르 김과 미스떠르 리는 인도네시아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좋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장 왕성하게 일하던 시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도 그 자리에 있지만 사람이 움직였고 시간이 쌓여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미스떠르 꼬레아들이 일하며 시간을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의 발자취를 더듬다

기획 탐방 3. 안선근 박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 탐방

글: 이영미/한인사 편찬위원회 연구위원

아잔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날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음. 종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나가길. 각계각층의 교민이 함께하는 탐방 분위기를 '한인 100년사'에 실었으면 하는 바람.

– 박재한 한인회장

쉬다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깨우치게 되는 '종교가 아닌 생활' 이슬람

– 이강현 삼성전자 인니법인 부사장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이슬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스레 형성된 이슬람 문화는 다름의 가치를 깨닫게 해 줌

–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 순종과 평화를 뜻하는 이슬람

'이슬람' 은 순종, 또는 평화를 뜻하고 '무슬림' 은 이슬람 신자를 의미한다. 3대 종교 중 가장 늦은 7세기에 출발했지만 불과 100년 만에 아라비아반도는 물론 중국까지 전파됐다. 이슬람교가 이토록 빠르게 각처로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민족에 대한 관용정책 때문이었다. 이슬람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생활 그 자체다. 또 현세의 삶과 내세를 동일시한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에 '안선근 박사와 함께 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 탐방' 을 위해 교민 10여 명과 박재한 한인회장, 이강현 삼성전자 인니법인 부사장,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성혜미 연합뉴스 기자, 조현영 자카르타 경제신문 기자, 채인숙 한인 100년사 수석 편집장으로 구성된 탐방팀이 모였다. 한국인 이슬람학자 안선근 인도네시아 국립이슬람대학(UIN) 교수는 인도네시아 종교 문화의 변천사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이슬람 문화를 요약 설명했으며 강의 후에는 이슬람 문화 탐방에 참석하게 된 계기를 공유했다.

안선근 박사(54세)는 이슬람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자카르타 소재 UIN 대학과 UIA 대학에 출강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학 간 교류와 발전에 관한 자문역을 맡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 국회의장 자문역을 역임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국회, 기업, 학생단체, 여성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펼치고 있다.

> 결혼, 사업, 학업, 종교적 매력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100~200명 추정

인도네시아의 초기 이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금의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지역(예전의 스리위자야 왕국) 내에서 상업무역 거래가 이루어진다. 당시 아랍의 예멘족이 초기 인도네시아 내의 향료무역(후추와 육두구)을 위해 머물며 이슬람을 전파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처음 이슬람 문화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유럽 내 네덜란드 인류학자들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전래된 시기를 약 11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토착 종교화된 힌두교와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후 상업이 발전하며 사회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종교와 달리 토착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개혁의 변화와 교육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편 선의적인 믿음보다 정부의 행정적 규제로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도 대다수다. 1965년 공산당 쿠데타 이후 수하르토 정부는 이후 국민 모두에게 1인 1종교의 선택을 강요했으며 종교를 믿지 않던 다수의 빈민층은 토속 신앙이나 이슬람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였던 무슬림의 수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유로 줄어들었지만, 이슬람은 인도네시아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한인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이자 문화이다.

> 순다 끌라빠 이슬람사원 (Masjid Agung Sunda Kelapa)

탐방팀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중부 자카르타 멘텡의 순다 끌라빠 이슬람사원이었다.

1960년대에 구스타프 압바스 (Gustaf Abbas) 박사가 주도하여 지어진 순다 끌라빠 이슬람사원(Masjid Agung Sunda Kelapa)은 일반적인 모스크 건축 양식을 따르지 않고 창의적으로 디자인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순다 끌라빠 이슬람사원에는 돔, 드럼, 별, 달 등 모스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상징이 없다. 무슬림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보트 모양 건물은 손을 잡고 앉아서 알라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연상케 한다. 이곳에서 초창기 한국인 무슬림들의 입교식이 이루어졌다.

* 순다 끌라빠 이슬람사원은 9,920m² 면적에 4,424명의 신자들을 수용 할 수 있다. 주 예배실, Sakinah Hall 및 Jayakarta Porch로 구성되어 있다. 5 층짜리 사무실 공간을 갖춘 이 사원은 매일 열려 (08.00–20.00 WIB) 있으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후원 단체 Dompet Dhuafa Republika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경제 활동과 무료 건강 서비스를 수행하는 Baitul Mal Wattamwil이 있다. 이 사원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절인가, 사원인가? 중국인들의 이슬람 선교사업을 위해 시작된 Lautze Mosque

돔이나 탑이 없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장식된 이 사원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리의 4층짜리 상점을 1991년 모스크로 변경했다. 무슬림 지식인 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전 대통령 B. J. Habibie가 중국인들을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원의 벽에는 중국어로 Quran의 내용이 적혀 있다. 2018년 기준 최소 114명이 이 사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 동남아시아 최대의 모스크 이스띠끄랄 이슬람사원(The Mesjid Istiqlal)

탐방팀의 두 번째 방문지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모스크, 이스띠그랄 이슬람사원이었다. 마침 주일 예배가 진행 중이라 탐방팀은 경내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들의 신실한 종교의식을 지켜보았다. 남녀가 구분된 참배 영역으로 어머니 대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예배를 드리는 어린 무슬림의 눈에는 신에 대한 경배보다는 탐방팀에 대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대며 경배를 올리는 안선근 박사의 몸짓에서 무슬림들이 믿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슬람교는 중재자나 대속자 없이 신과 신자의 직접 대화나 교통을 가르친다.

1955년 이스띠끄랄 이슬람사원 건축위원회가 형성되었을 때, 수카르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공모하여 채택된 안을 바탕으로 1961년 8월에 착공하였다. 만 6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67년 9월부터 기도처로 사용되다 1978년 2월 22일에 공식적인 개관을 하였으니 17년 만에 완공된 셈이다. 9.5헥타르의 부지에 세워진 엄청난 규모의 사원은 남녀를 구분해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세워진 이스띠끄랄 사원은 중요한 종교 축제를 위해 오는 수천 명의 참배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차량 8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테라스까지 포함하면 모두 십만 명의 무슬림이 동시에 참배할 수 있다는 이력을 지녔다.

사원의 서쪽 벽에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알라의 이름은 동정과 자비로", "알라를 찾기 위해 기도하자"는 세 개의 문구가 씌어 있다. '독립'을 의미하는 이스띠끄랄 사원이 100년 된120여년 된 가톨릭 대성당과 마주해 건설된 이유는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이주한 첫 한국 여성 이민전(76)씨

이후 탐방팀은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Dapur Babah Elite Restoran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속의 한국인 무슬림을 대표하는 이민전 씨와 그의 아들 한인 씨를 만났다.

"1960년대 중반 호기심에 찾아간 이슬람교 예배당성원(서울 남영동 소재, 후일 이태원 소재 이슬람 사원이 됨) 주말 예배에서 그를 만났어요.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이던 아미르 파타는 군인 출신답지 않게 자상했어요. 5년쯤 만난 후 1971년에 결혼, 2년 뒤 첫아들 '한인(한국 · 인도네시아 상징 차용)' 을 낳고 다시 2년 뒤 딸 '코리나(코리아 · 인도네시아 상징 차용)' 를 낳았어요. 1983년 두 아이를 데리고 먼저 자카르타에 이주했어요. 몇 년 뒤 뒤따라온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웠어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나, 남편의 빈 자리는 컸어요."

"그와 함께 거닐던 한국의 명소들을 나열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언젠가 그를 추억하는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젊은 날이 가슴 떨리게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30년 동안 하루도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답니다."

2017년 갑작스레 찾아온 뇌졸중으로 대화와 거동이 불편한 이민전 씨를 대신해 그의 아들 한인이 어머니의 살아온 날을 전했다. 국립인도네시아대(UI) 세무행정학과를 졸업한 한인 씨는 현재 LG이노텍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탐방 팀은 아들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등장한 이민전 씨의 쇠약한 몸이 아니라 총명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기억할 것이다.

'한인사 100년 기획 탐방—이슬람편' 을 기획·진행한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도록 매듭을 지어준 곳에 "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빛이 나는 " 종교 이슬람이 있었다." 고 전했다.

> 인간 존엄의 의미와 다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이슬람 문화탐방

이날 탐방팀을 격려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탐방에 참석한 박재한 한인회장은 "한정된 만남이 잦은 인생사에 이런 만남이 잦아졌으면 한다. 각계각층의 교민이 함께 참여한 이슬람 문학 탐방의 분위기가 한인 100년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슬람 문화의 교육과 안내를 맡은 안선근 박사에게 크나큰 박수를 보낸다." 는 의사를 밝혔다.

1994년 이슬람교에 입교한 이강현 삼성전자 인니법인 부사장은 "이슬람 신자로서 형제로 받아들인 인도네시아에 고마움을 느낀다. 무더운 날씨에 그늘진 곳을 찾는 곳이 사원이며 쉬다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깨우치게 되는 '종교가 아닌 생활' 로 이슬람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국인들에게 아직 생소한 종교 이슬람. 사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은 이슬람은 유일신인 알라에게 절대복종해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는 사상을 지녔다. '사랑' 을 중시하는 기독교와 '자비' 를 강조하는 불교, '인(仁)' 을 추구하는 유교와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가 자행하는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의 변화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존재하다' 라는 뜻의 영어 exist는 '밖에 서 있다' 라는 라틴어 existo에서 나온 말이다.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을 떠나 새로운 곳 혹은 낯선 곳에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이슬람을 찾아 나선 이슬람 문화탐방은 우리에게 인간 존엄의 의미와 다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하루였다.

☞ 참고자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이슬람 탐방 소책자

Kor-Indo Collabor~ Sudah Siap!!
가속되는 한·인니 밀월시대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조코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11월 27일)

"양국은 전례 없이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나라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조코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같은해 11월, 그리고 작년 9월 및 올해 6월에 이어 취임 후 벌써 네번째 단독회담을 갖은 두 정상은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각 "소중한 친구" 와 "우리 존경하는 형님" 이라는 이례적 표현을 담아 서로의 친밀감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그리고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수파르만토 인니 무역부 장관이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자유화와 신남방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CEPA 협상을 2012년 시작했었으나 2014년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올 2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오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삼아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한-인니 CEPA 타결' 은 인구 2억7000만명에 달하는 인니 시장이 본격 열리는 셈으로 현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인니 CEPA는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중점 추진한 협상 중 첫 번째 성과로서 이를 통해 한국은 아세안 교역 중 2위 시장인 인니 시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바, 양국 교역액은 2022년까지 3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서 우수한 기술 및 선진 노하우를 가진 우리나라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우선, 양 정상은 회담 중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호혜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이 빠른 시일내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인니 정부가 보르네오섬 동깔리만탄으로의 수도 이전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양국의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인니 수도 이전 사업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실제, 문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중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도 이전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코위 대통령 또한 이미 우리 기업이 아세안 역내 첫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발표한 상황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 4가지(니켈 구리 리튬 코발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금번 국내 자동차 기업의 인니 진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전기자동차 시장의 거점기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준비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각료회의에서 최근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을 빠져나온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두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던 만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인니 정부의 노력이 기대되는 바, 실제 조코위 2기 정부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법률 74개 항목을 수정해달라고 지난 달 의회에 제출하는 등 투자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정과 규범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다.

실제, 경상수지적자가 연 330억불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외직접투자로 그 갭을 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순해외직접투자액은 170억불에 그쳐 160억의 추가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드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간 중국에서 아세안지역으로 생산법인을 이동한 33개 중국 상장법인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향한 반면 인도네시아를 택한 기업은 하나도 없었던 만큼 2기 조코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에서 두 번이나 맞붙은 자신의 최대 정적을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2기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할 만큼 보기드문 협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 안정과 평화 추구가 인도네시아 미래를 위한 기본 토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코의 정치 철학의 실천의 결과일 것이다.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 메인 무대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올리며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던 조코위 대통령의 올해 재전 도전 당시 , 한국을 사랑하는 인니 통령의 5년 재집권이 현지 교민과 기업을 물론이고 한국에 불리할 건 없겠다는 생각은 필자의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향후 5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지난 100년이 잘 정리되어야 앞으로의 100년도 준비할 수 있다 “

11월 27일 동포재단 한우성이사장은 동포재단의 지원이 필요한 한인회를 비롯, 여러 분야의 제안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 이사장은 27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며 자카르타 한식당에서 한인회와 한글학교 교감 등 동포 10여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2박3일 일정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한 한 이사장은 다양한 동포 지원사업의 제안과 요청을 들으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인회는 내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에 맞춰 100년사 집필과 출판, 100주년 기념식, 한복 패션쇼 등 기념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동포재단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100주년 사업 총예산 17만5천 달러(2억원) 가운데 30%는 동포사회 후원금, 30%는 한인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8천여만원)를 동포재단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지난해 추진한 ‘프랑스 한인 100년사’ 편찬에 동포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에도 재단이 진지하게 참여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포재단은 분명한 파트너이므로 재인니 한인사회의 합의가 선행된다면 사업검토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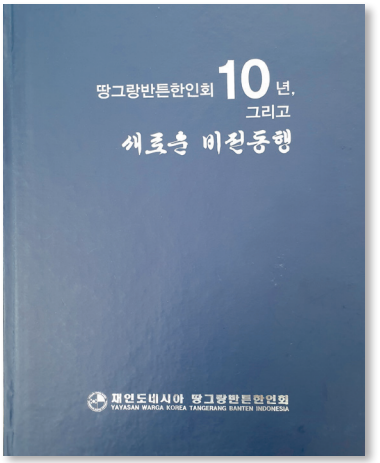
이 자리에 참석한 코윈 한글학교 김석주교감과 땅그랑 열린 한글학교 문성숙교감은 한글학교의 교재를 비롯한 여러 방면의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에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비는 연간 600억원이며, 이 가운데 200억원이 전 세계 1천800여개의 한글학교 지원금으로 쓰인다. 인도네시아 한글학교 10곳은 1억원을 지원받는다.
한 이사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가능한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한글학교 예산을 계속 늘려왔다” 며 동포재단은 “한인동포의 권익 신장, 2세들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동포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힘을 모으는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한글학교 운영 예산의 절반은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동포들이 부담하도록 지원금을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며 “현재는 (한국 지원금 비중이) 30%를 넘었는데, 50%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 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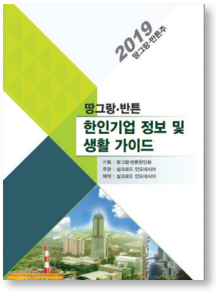
한 이사장은 동포사회에 집행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 투표하여 참정권을 동포들이 행사하는 것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인도네시아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 10주년 및 출판기념회



땅그랑반튼한인회에서 발행한 10년사는 한인회 설립시점부터의 해당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로 작성된 10년의 기록물이다.

> 땅그랑반튼한인회는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됨을 통한 한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였다.



11월 29일, 땅그랑반튼한인회는 Arya Duta Imperial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및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땅그랑반튼한인회 10년, 그리고 새로운 비전동행' 이라는 10년사와 지역 한인들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가이드 북이 함께 출간되었다.

식장입구에는 이세호 초대 회장에 이어 제2대 하연수 회장, 제3대 오세명 회장, 제4대 채만용 회장에 이르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채만용 회장은 지금까지 기쁜 일 궂은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준 땅그랑반튼 지역 한인들과 그동안 성원해 준 동포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념식에는 주인니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재인니한인회 박재한 회장, 재인니한인회 승은호 명예회장,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등의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이 자리를 가득 메워 땅그랑반튼지역 특유의 활기로 한인사회 속 모범으로 자리매김한 10주년을 축하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는 앞으로도 수낫딴마샬 행사를 유지 계승하는 등 지역 현지 주민과 함께 하고,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지속하며 현지의 재해 재난사고의 구호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문화 교실 운영의 활성화와 한인의 밤 행사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기회 제공 등의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회의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송광종) 출범회의가 지난 11월 12일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 이숙진 아시아태평양 부의장, 동남아남부협의회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등 각국의 자문 위원들과 김창범 대사와 박재한 한인회장, 각 단체장이 함께 자리하는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광종 회장은 "동남아 남부지역은 미래 시장의 중심 또한 신남방 정책의 마지막 정점 지역으로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교민참여의 통일기구로 역할 정립을 통해 동포와 함께하는 자문활동, 동포가 체감하는 평화만들기, 여성과 청년 역할제고, 공공외교 역량강화의 활동 방향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동포가 참여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일원이기를 기대한다" 며 특별히 이번 19기는 여성과 청년 자문위원님들의 참여비율이 높였다고 말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각 지역별 대표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된 후, 송광종 동남아남부협의회장이 임기 내 활동 진행방향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출범회의 후에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평화통일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며 '우리의 소원' 을 합창하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5개국 민주평통 지회의 19기 신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요즘 북한이 속이 상해서 금강산 뜯는다, 회담 필요 없다 심술을 부리고 있지만 이 시기를 넘으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는 김정은과 북핵 문제 해결로 재선도 하고 외교사에 업적을 남기려는 트럼프, 둘이 움직이면 평화가 온다. 현재 북미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30주년 기념 리셉션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대사 임성남)는 지난 11월 7일(목)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한-아세안 3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임성남 대사는 "2017년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양측간 실질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아세안 협력 관계가 금년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그리고 특히 11월 말에 개최되는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리셉션에는 아세안 및 한국 음악 공연 등도 있었다. 아세안 및 한국 연주가 40명으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Asia Traditional Orchestra), 브루나이 출신 가수 Jaz, 인도네시아 K-Pop 경연대회 우승팀 Invasion Girls의 커버댄스, 자카르타에서 활동중인 한국 가수 맥케이의 공연 등을 통해 리셉션 자리에 함께 한 외교단, 정부인사, 아세안 국민들에게 한류의 매력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세안대표부에 따르면 "한-아세안 30주년 기념 리셉션은 2019년 8월 완공된 아세안 사무국 신청사에서 개최되어 한-아세안간 협력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번 리셉션은 아세안 대화상대국 가운데에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한 대규모 행사"라고 전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다. 대화 상대국도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유럽연합(EU) 등 10개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첫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고, 2014년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이달 25~26일 부산에서 세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열었다.

반란의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지도 (1943년, 붉은 색은 일본과 독일 점령 지역)

지난 호에 이어

베스털링의 APRA가 일으킨 군사행동에 네덜란드군 정예부대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뉴스를 타고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가장 먼저 보도를 낸 것은 1950년 1월 23일의 로이터 통신원 휴 래밍이었고 호주 멜번썬(Melbourne Sun)지에 '한 위기가 장대한 스케일로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키다' 라는 기사제목을 붙였다. 주미 네덜란드 대사 반클레픈스 조차 '네덜란드가 교활한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에 상처를 냈고 반둥을 공격한 것은 네덜란드의 검은 손이었다' 고 미국인들 앞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네덜란드 역시 베스털링의 APRA 반란을 비난하는 쪽에 섰다는 인상을 주었다.

더 이상의 쿠데타 시도를 할 수 없었던 베스털링은 자카르타에서 피신생활을 하며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들여 함께 거처를 옮겨 다녔다. 그러던 1950년 2월 8일 베스털링의 부인이 반랑겐을 만났다. 끄라이작전의 주역이었던 반랑겐 대령은 이제 육군소장으로 진급해 총참모장의 보직은 맡고 있었다. 베스털링의 상황을 들은 반랑겐은 반브레덴장군, 허쉬펠트 고등판무관, 그리고 당시 자카르타를 방문 중이던 네덜란드 국무장관 W.H.안드레아 포커마에게 즉시 보고했다. 졸지에 동인도제도의 식민지를 잃은 네덜란드인들의 입장에서 베스털링은 애국영웅이었으므로 네덜란드군과 관료들은 머리를 짜내 베스털링을 서부뉴기니로 빼돌리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월 9일 하타부통령은 네덜란드측이 베스털링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경우 즉시 공화국측에 인도할 것을 촉구했다. 네덜란드 측은 허허 웃으며 그러리라 답변했지만 그러고서도 실제로는 베스털링을 빼돌리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네덜란드가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면할 수 없으리라 판단한 허쉬펠트는 베스털링 구출계획 보류를 군에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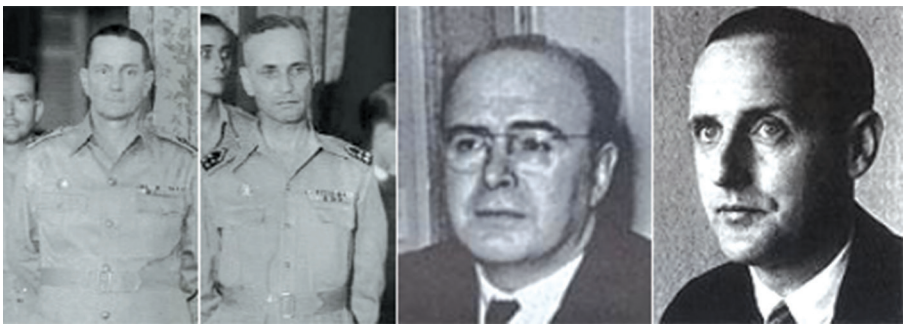
그러나 반랑겐 소장은 허쉬펠트의 지시를 무시하고 2월 10일 비밀리에 정보참모 F. 반더벤 소령을 시켜 베스털링과 접촉해 그를 인도네시아에서 빼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보가우츠 중령의 도움을 받아 꺼본시리 지역 은신처에서 베스털링을 만나 얘기한 내용을 반랑겐 소장에게 알렸고 베스털링

이 은신처를 옮겨다니는 동안 허쉬펠트 고등판무관을 제외한 민간관료와 군은 물론 반브레덴 사령관과 포커마 국무장관까지 모든 네덜란드 요인들이 베스털링의 은신과 도피에 연루되어 협조했다. 이 모든 일들은 포커마 국무장관이 총대를 매고 주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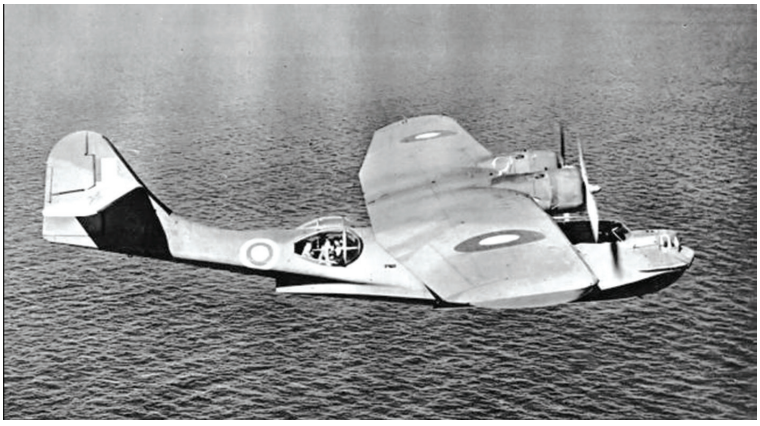
2월 17일 보가우츠 중령과 반더벤 소령은 베스털링 소개임무를 맡아 J.W. 키스트 해군 중장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해군공무항공기 카탈리나 밀크편에 베스털링을 태우기로 했다. 그들은 돈과 고무보트, 위조여권 등을 준비해 2월 18일 반브레덴 장군에게 보고했고 반더벤 중령은 해군공무항공대 P. 브론 대위에게 카탈리나호를 특수임무에 사용한다고 둘러대어 키스트 중장의 재가까지 받았다. 키스트 중장은 한 특수부대 장교를 리아우섬에 데려가기 위해 항공기를 사용한다고 보고받은 상태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베스털링을 빼돌리는 작전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보고받은 승선자 이름은 터키 태생 베스털링이 아니라 마닐라에서 태어난 윌렘 루이텐베엑이었다.
2월 22일 베스털링은 KNIL부대의 상사 군복을 입고 반더벤 중령과 함께 딴중쁘리옥 항구에서 그곳을 경유하는 카탈리나기에 몸을 싣고 곧장 싱가포르로 날아가 그날 정오경 싱가포르 1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착륙해 고무보트를 내렸다.

베스털링의 저서인 드엔링(De Eenling)에 따르면 그의 고무보트는 구멍이 나 침수되었으나 한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싱가포르에 무사히 입성했다고 한다.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친구인 화교무기상 찌아삐엣까이와 만나 조만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지독한 악당이면서도 불굴의 투지까지 가졌다면 참 곤란한 상대가 아닐 수 없는데 포기를 모르는 베스털링이 그런 사람이었다.

한편 베스털링이 싱가포르로 도망치면서 수장을 잃은 APRA는 1950년 2월 그 기능을 멈추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술탄 하미드 2세도 자카르타에서 체포되었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 반란에 동조했다는 죄목으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사형받아 마땅한 죄목인데도 술탄이라는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그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2월 24일 한 프랑스통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베스털링이 네덜란드 해군소속 카달리나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입국했다는 보도를 냈다. 네덜란드 당국이 줄곧 자신들의 연루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중에 터진 이 보도는 뜨거운 스캔들이 전세계로 전파되었고 미국 주간지 라이프지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가 자카르타를 떠나기 전인 2월 20일 로이터통신의 기자 휴 래밍은 베스털링이 싱가포르로 향하는 중이며 곧 유럽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반브레덴 중장 반랑겐 소장 허쉬펠트 고등판무관 포커마 국무장관



카탈리나 밀크와 같은 기종.

정보를 입수해 런던에 전보를 날리기도 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보도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군 지휘관들과 민간 관료들의 얼굴을 화끈 달아오르게 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던 허쉬펠트 고등판무관은 배신감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내각의 질문공격을 당했고 반브레덴과 반랑겐은 여전히 네덜란드군이 연루된 바 없다고 잡아 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2월 25일 허쉬펠트는 자신과 키스트 해군중장만이 반브레덴장군과 반랑겐소장, 포커마장관이 기획한 베스털링 구출계획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포커마 장관이 성명을 통해 자신이 이 모든 계획을 지시했으며 허쉬펠트는 이 일과 무관함을 천명했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주둔 네덜란드군 수뇌부와 허쉬펠트의 신뢰관계는 물론 허쉬펠트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가졌던 일말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찌아삐엣까이의 집에 머물던 베스털링은 2월 26일 영국경찰에게 전격 체포되어 창이 감옥에 투옥된다. 이 소식을 들은 공화국 정부는 싱가포르 당국에 베스털링을 인도네시아로 추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해 8월 15일 싱가포르 대법원은 결심에서 에반스 판사는 네덜란드 국적의 베스털링을 인도네시아로 추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선 8월 7일 네덜란드 의회는 베스털링이 네덜란드에 도착하는 데로 체포해 투옥할 것임을 의결한 바 있었다. 베스털링은 8월 21일 싱가포르의 네덜란드 총영사와 베스털링의 변호사 R. 반더가악이 동행하여 호주 칸타스 항공편으로 싱가포르를 출발했다. 그러나 베스털링은 네덜란드로 직행하지 않고 반더가악의 양해를 얻어 벨기에 브뤼셀에 내렸다. 그는 거기서 '영원한 충성협회'를 세운 헤이그 암본인 대리인들의 방문을 받아 조속히 말루꾸로 들어가 공화국 정부에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암본을 중심으로 한 말루꾸 지역은 식민지 시절은 물론 독립전쟁 시절 내내 네덜란드에게 충성을 바쳤던 지역이었고 인도네시아가 주권을 되찾자 마자 반란과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끝까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집념을 불태우던 베스털링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영예로운 사람'으로 추앙받기까지 했다.

1952년 초 베스털링은 비밀리에 네덜란드에 입국했지만 금방 행적이 탄로나 4월 16일 당국에 체포된다. 그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 주재 인도네시아 측 고등판무관 수산토가 5월 12일 베스털링을 인도네시아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베스털링을 방면했다. 네덜란드의 여론이 그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상황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해 10월 31일 네덜란드 대법원이 네덜란드인인 베스털링을 인도네시아로 추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베스털링은 그렇게 유유히 유치장에서 풀려난 뒤 다양한 회합에 나가 그의 견해를 얘기하며 추종자들을 늘렸다.

한 회합에서는 왜 수까르노를 그냥 쏴죽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베스털링은 이렇게 대답했다.

"네덜란드인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총알 한 발 가격은 35센트이죠. 하지만 수까르노의 가치는 5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30센트씩이나 손해를 봐서야 안될 일이죠."

1954년 12월 17일 베스털링은 암스테르담의 법무부에 호출되어 자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결정되었음을 들었다. 그리고 1955년 1월 4일 베스털링은 같은 내용의 법원 결정문을 서면으로도 받았다. 네덜란드 안에서 그의 법적지위는 완벽해진 것이다.

베스털링은 그 후 두 권의 책을 쓰는데 하나는 1952년 출간된 '기억' 이란 제목의 자서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1982년에 출간된 드엔링(De Eenling)이라는 책이었다. '기억' 은 불어, 독어, 영어로 번역되기도 했고 영문판은 '테러에 대한 도전' 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이 책은 높은 판매고를 올렸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지 반란진압 필요가 있는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전투전략 분야 대소요작전의 바이블이 되었다.

그토록 많은 인명을 잔혹하게 살상했던 베스털링 본인은 1987년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참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다.

얘기는 다시 APRA 반란 직후인 1950년으로 돌아간다. 불발에 그치고 난 APRA 반란은 당초 인도네시아 합주국을 분열시키려던 베스털링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서부자바 빠순단주가 급속히 와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를 시작으로 다른 자치주들도 줄줄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도네시아 합주국의 연방구도는 조기에 해체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인들의 영웅 베스털링

안디 아지스(Andi Azis) 대위

안디 아지스의 반란

이 착하게 생긴 남자는 안디 압둘 아지스라는 사람이다. 20세기 초에 태어난 사람 치고 파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아지스 역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는 남부 술라웨시에서 부기스족 가정에서 태어났다. 술라웨시는 자바, 수마트라처럼 민족주위 열기가 높았던 곳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더욱 큰 지역이었다. 네덜란드의 착취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극에 달했지만 술탄과 지주들의 지위와 권리를 네덜란드가 지켜준만큼 상류층들은 네덜란드에게 호의적이었고 그 계층의 젊은이들은 네덜란드를 동경했다.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네덜란드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군을 쓸어버리기 전까지 파라다이스이자 특권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들 상류층들은 스스로를 네덜란드인이라 생각했을까?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도 스스로를 일본인이라 자부하거나, 일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동족의 가슴에 총을 겨눴던 인사들이 넘쳐 났으니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리 없다.

다음호에 계속

2019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경제조정부, 투자 '포지티브리스트' 책정…내년부터 실시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외자 기업에 투자를 개방할 분야를 정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를 책정할 방침이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에 따르면, 실시를 위해 외자의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의 개정령을 내년 1월 공포한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설정하면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비율이 높은 품목의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포지티브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리스트의 간소화도 진행한다. 경제조정부는 "국제 조약에서 금지된 화학 무기나 수은을 취급하는 것, 혹은 국익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관해서는 계속 규제하지만, 나머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숩 연구원은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토지 취득의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용지 획득이 안되면 제조업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정 중인 세제 및 인허가 제도 등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옴니버스법' 등이 최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한 투자 환경을 즉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 6개국 유럽연합에 대항하기로 합의

인도네시아 등 팜유 주요 생산국 6개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팜유생산국위원회(CPOPC) 각료회의에서 환경문제를 이유로 유럽연합(EU) 등이 진행 중인 팜유 사용 금지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전했다.

팜유 주요 생산국 6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브라질,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태국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팜유 주요 생산국 6개국은 EU의 팜유 수입 규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국의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삼림 벌채를 문제 삼아 2030년까지 팜유 유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대항 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팜유 생산국의 CPOPC 가입을 촉구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CPOPC는 2015년에 설립돼 현재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파푸아 뉴기니, 온두라스가 있다.

한편, 국제팜유회의 · 전시회(PIPOC)도 개최해 팜유 농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 효율의 향상과 지속적인 팜유 산업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달라진 가계지출...
통신 · 건강관리비 '늘고' 의류 · 신발 '줄어'

인도네시아 경제계는 소비자들의 달라진 소비패턴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의 파이살 바스리 경제학자는 "가계지출 패턴이 이전과 다른 상품군으로 옮겨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올해는 옷과 신발 판매가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통신과 기계장치 수요는 증가했다 "라고 설명했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소비지출의 한 부문인 교통 · 통신부문은 2분기(4.69%)에 비해 3분기(4.35%)에 전년 동기 대비 4.35% 성장했다. 한편 의류와 신발은 2분기 5.06%에서 3분기에 3.99%로 둔화됐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자협회(Aprindo)의 로이 협회장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대형 백화점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소매업체들은 대형 점포 확장을 중단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소매업자협회는 3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제계는 소비지출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바하나 증권의 사트리아 경제학자는 "대규모 중산층이 소비지출 속도를 계속 유지할 것" 이라고 말하며 "하위 소득 소비자들 또한 최근 교육, 건강, 주식 등 다양한 정부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소비지출에 대한 인식이 상향됐다" 고 말했다. 특히, 건강관리와 교육 부문이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자카르타주 내년 최저임금 428만 루피아로… 전년비 8.5% 상승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특별 주정부는 1일 내년 주 최저임금(UMP / Upah Minimum Provinsi)을 월 427만 6,350루피아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 34만 루피아(8.51 %) 상승해 처음으로 4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월 460만 루피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의 시위를 계속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지난달 28일자로 제정, 29일자로 공포한 주지사령 '2019년 제121호'에 따라 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10월 시점의 인플레이션(3.39%)과 경제성장률(5.12%)을 가산한 8.51%로 설정했다. 이는 8.03%의 전년 대비 상승률 보다 0.48 포인트 웃돌았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270만 루피아에서 5년간 60% 가까이 상승했다. 자카르타는 또한 주최저임금이 설정된 후 업종별로 구분된 부문별 최저임금도 설정된다. 2019년의 부문별 최저임금은 일부 업종에서 5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한 관계자는 2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이달 20일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전국의 주지사들에게 주 최저임금을 11월 1일 일제히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서부 자바주와 중부 자바주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각각 181만 351루피아와 174만 2,015루피아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매년 주가 적용하는 지역최저임금(UMK – Upah Minimum Kota)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고 있다.

현지 국영안따라 통신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34개 주 중 20개 주가 최저임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9개 주가 정부가 설정한 인상률 8.51%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준수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주최저임금의 인상폭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8%를 넘어서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Jakarta Biz Weekly

인도네시아 핀테크 기업, 은행과 제휴 증가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IT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기업과 은행과의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던 양측은 최근 서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적 포용' 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간 대출 P2P(Peer to Peer)를 다루는 아마르따(Amarta)는 여성 기업가 대출 재원으로 인도네시아의 복합 기업 아스뜨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 산하의 은행 쁘르마따(Bank Permata)에서 1,500억 루피아, 만디리 실버(Mandiri Silver) 산하 만디리 캐피탈 인도네시아(PT Mandiri Capital Indonesia)에서 1,000억~2,000억 루피아를 각각 조달했다.

또 다른 PtoP 사업자 인베스틀리(Investly)는 8월 말 시점 국영 은행 Bank Rakyat Indonesia(BRI)에서 2,000억 루피아를 조달했다. 내년에는 추가로 1조~2조 루피아의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BRI 관계자(소규모 사업 개발 담당)는 "핀테크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은행 계좌가 없는 계층의 대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금융감독청(OJK)의 인가를 받고 있는 핀테크 기업 120개사에 의한 9월 말 누계 대출 금액은 약 60조 4,000억 루피아에 이른다. 1,400만 건 이상의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담배 종류별 증세액 발표... 흡연율 저하 · 세수증가 기대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이 15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는 1억 6,130만 달러 흑자였다. 2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149억 3,380만 달러, 수입액은 16.4% 감소한 147억 7,250만 달러였다.

비석유가스 수출은 전월 대비 5.6% 증가했다. 주요 10개 품목 중 자동차 부품, 슬래그 및 재 등 4개 품목이 두 자리수 성장을 보인 반면, 가공 식품(37% 감소)가 두 자리수 감소했다. 비석유가스의 수입액은 2.7% 증가했다. 주요 10개 품목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던 것은 선박과 물에 뜨는 구조물로 45.8% 감소했다. 한편, 광물성 연료가 46.3% 증가로 가장 크게 성장했다.

1~10월 무역수지는 17억 8,71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7.8%, 수입액이 9.9% 각각 감소했다.

1~10월 주요 11개국의 비석유가스 수출은 중국, 대만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8개국에서 감소했다. 수입액은 총 11개국에서 감소했고, 특히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이 두 자리수 감소했다. 국가 · 지역별 무역수지는 일본을 포함한 5개국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152억 달러 최대였다.

Patio Venue (Dharmawangsa)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여러분~안녕하세요? 어딜가든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는 12월 연말이 왔어요^^ 이번 호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비롯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하는 연말 파티에 딱 어울리는 맛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12월호 맛집 소개를 위해 그동안 고이고이 아껴 두었던 저의 단골 식당인~두구두구두구두구~Patio Venue를 소개합니다!

이 식당은 음식맛, 분위기, 가격, 위치 등 어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팔색조 매력을 가진 곳이죠@.@ 우선, 한산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식당 위치부터 비밀스런 정원에 들어서는 느낌이 드는 식당 입구, 유럽 분위기의 식당 인테리어 등 방문객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식당 종업원이 가져다 준 메뉴판을 보고 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고급 레스토랑 치고 가격이 착하거든요@.@ 이 뿐만인가요~주문한 음식이 테이블에 서빙되는 순간 황홀해집니다. 인증샷도 찍기도 전에 '우와~맛있겠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나도 모르게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음식이 입 안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럼 이렇게 완벽한 식당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먼저 향긋한 루꼴라가 가득한 Bresaola Salad(79,000루피아++)로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에어드라이 소고기, 루꼴라, 토마토, 파마산 치즈, 트러플오일로 만들어진 이 샐러드는 정말 강추입니다! 보통 이런 샐러드는 다른 곳에서는 비싸게 파는데요. 이 식당에서는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피자, 파스타 등 느끼한 이탈리안 음식들을 먹을 때, 루꼴라가 곁들어진 샐러드를 함께 먹으면 그 느끼함을 꽉 잡아 줍니다. 입맛도 돋구어 주고 느끼함도 잡아주고 일석이조의 가성비가 매우 좋은 샐러드죠~

일명 버섯피자인 Con Funghi(125,000루피아++)! 각종 버섯이 듬뿍 들어가서 버섯향이 끝내줍니다. 다른 이탈리안 식당에서도 버섯피자를 파는데요. 이 곳처럼 다양한 버섯을 퍼주는 식당은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격까지 참 착해서 좋아요☺ 피자 도우도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딱 적당하고 아낌없는 토핑으로 흠 잡을 데가 없는 Best of the best 피자이지요! 참 이 곳 피자는 모두 화덕에서 구운다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ㅋㅋ

그 다음은 오징어먹물 리조또인 Risotto Nero Alle Di Sephia(99,000루피아++)입니다. 우선 양을 보고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양이 많지 않거든요ㅠㅠ 그래도 오동통한 하얀 오징어 속살이 맛있어서 양이 좀 적은 것 쯤이야 봐 줄 수 있어요ㅋㅋ 개인적으로 맛있는 리조또를 판가름하는 것은 쌀의 익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징어먹물 리조또는 죽처럼 너무 퍼지지도 않고 쌀이 덜 익어 딱딱하지도 않게 딱 적당히 익혀 식감이 좋습니다. 리조또 보다는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Spaghetti Alla Ragu(105,000루피아++)를 추천합니다. 다진 쇠고기와 바질이 곁들어진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한 파스타로 무엇보다 양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고급식당으로 유명한 Plataran Group이 운영하는 Patio Venue는 메인홀 외에도 3개의 프라이빗 룸을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모임 행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그래서인지 매번 이 곳을 방문할 때마다 생일파티, 브라이덜 샤워 파티 등 항상 소규모 행사가 있더라고요. 점심보다는 저녁에 더 아름다운 식당 Patio Venue에서 올해 연말 파티 어떠세요?

가족들 및 지인들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며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2020년에 만나요!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Patio Venue>

음식 종류 : 이탈리안, 아시안
가격대 : Rp 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금 11:00~22:00 /
토-일 8:00~22:00
전화번호 : 021-724-1363
위치 : Jl.Wijaya XIII No.45,
Dharmawangsa, Jakarta

※ Zomato 참고

인도네시아는 사람과 언어의 전시장

한상재 / 칼럼니스트 :한국문협 인니지부 고문

인도네시아는 한 마디로 말해 어떤 나라일까? 가끔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인도네시아를 한마디로 이런 나라다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한마디로 진단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섬이라도 관습과 풍습이 전혀 다른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이나 전통만 다른 게 아니라 종교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다.

그것은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혹은 어떤 역사책을 읽었느냐고 하는 배경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자바에서만 살던 사람이 인도네시아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벼농사를 주로 짓는 이슬람 국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칼리만탄(Kalimantan)이나 수마트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칼리만탄(Kalimanatan)이나 빠뿌아(Papua)같은 곳에선 벼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벼농사는 자바(Jawa)와 발리(Bali), 그리고 술라웨시(Sulawesi) 남부, 그 외에도 수마트라 섬의 일부 지역에 발달되어 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나라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사회, 문화, 전통, 관습, 종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족의 다양성이라고 봤다.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 내느냐 하는데 골몰한 나머지 빤짜실라(PANCASILA)라고 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 상징엔 다양성 속의 조화를 넣은 것이다. 지역성을 넣지 않고 농사짓는 사람이나 소나 말을 기르는 사람이나 나무를 베어먹고 사는 사람을 모두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보고 출발한 것이다.

이런 정신은 오늘 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마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처럼 사라(SARA)를 내세우고 규제하고 있다. 누구라도 종족을 비난하거나 들먹여선 안되고 종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교는 가끔 탄압을 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다. 다수의 횡포가 있다. 특히 지방에서 심한 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도 안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아체(Aceh)나 빠뿌아(Papua)에서 보는 것처럼 자치 독립을 주장한답시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기를 들고 주민들을 강요하거나 반정부의 전선에 서기도 한다.

도대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어쨌든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초기에 강을 중심으로 하는 벼농사 단위의 마을 공동체로부터 발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수로 중심의 벼농사를 짓고 논밭의 크기에 따라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논이 비옥한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왕래하기 위해 수상 교통수단으로 원목을 쪼개 만든 삼판을 띄웠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나 중국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철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전래했을 것이다. 철제는 인도네시아 수로 교통시대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특히 벼농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적도를 중심으로 부는 무역풍을 타고 왔다. 무역풍은 1년에 두 번 분다. 여섯 달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나머지 여섯 달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이것을 중국 대륙에 고기압이 형성되느냐 저기압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 대륙이 여름이면 저기압이 크게 발달하여 적도에서 위로 분다. 반대로 중국이 고기압이면 북에서 적도로 분다. 따라서 당시 중국인들은 주로 겨울에 적도로 부는 바람을 따라 내려왔다. 바람이 부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수마트라 남단, 즉 잠비(Jambi)나 빨렘방(Palembang)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기다렸다 인도로 가고 인도네시아 6개 월 후 다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따라 돌아온 것이다.

이 해상 루트가 바로 실크 해상로드다. 이렇게 무역풍을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비(Jambi)나 빨렘방(Palembang), 더 나아가서는 싱가포르와 조호르(Johor), 그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ka), 수마트라 서부의 빠당(Padang), 벵꿀루(Bengkulu) 등에 인도 방면에서 온 힌두교나 불교 신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스리위자야(Sriwijaya) 불교 왕국이다. 하지만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중동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슬람이 전해지면서 불교는 싸우기 싫으니까 11세기 말 캄보디아로 넘어가 앙코르 와트를 남긴다. 하지만 이들 중동 이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머무는 동안 이슬람 율법에 따라 아주 편하게 현지에서 부인을 더 얻고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의 문을 활짝 연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초기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토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에서 흘러온 사람들은 힌두교라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종교를 자랑 삼아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가만히 보니 자기들의 토속 신앙보다 뭔가 그럴 듯하다고 느끼면서 이들도 힌두교로 갈아탔을 것이다. 그 후 중국 남쪽 사람들이 내려와 정착하면서 불교도 전해졌다. 사실 불교 의식이 힌두교 의식보다는 좀더 장엄해 보이고 멋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어느 종교가 더 나은 것인지 몰라 한동안 갈등에 빠졌던 것 같다. 그러나 더 장엄한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무역풍을 따라 돈을 많이 버는 이슬람 종교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금도 보게 되면 지방의 작은 도시에 술탄이라는 칭호를 쓰는 데가 있고 라자(Raja)라는 칭호를 쓰는 데가 있다. 그것은 어디서 온 사람이 지방 지도자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인도에서 와 지방 토후가 된 지역은 라자(Raja)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이고 중동서 왔다 그냥 눌러 앉아 자기 스스로 술탄이라 자칭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마트라 메단(Medan) 근처에서 라자(Raja)라는 호칭이 많이 발견되고 서부자바 라든지 중동부 자바, 그리고 술라웨시(Sulawesi)나 할마헤라(Halmahera) 등지는 술탄이 더 많다. 결국 족자카르타(Jogjakarta)도 보면 아직까지 술탄 칭호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반면에 메단(Medan)에는 라자(Raja)의 칭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무역풍을 따라 인도나 중동 혹은 서양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북쪽에선 중국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피해 따듯한 인도네시아로 내려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인도 북쪽의 산스크리트어가 들어오고 중동의 이슬람 언어, 그 외에도 네덜란드(Netherland)어, 영어, 중국 남쪽의 복건(Hoken)어, 만다린(Mandarin) 등 언어가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 통합된 언어가 필요해지고 그것이 지금의 바하사(Bahasa)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하사(Bahasa)의 기준이 자바어가 아니고 수마트라 남동부, 즉 잠비(Jambi)와 빨렘방(Palembang)을 아우르는 그 일대의 지역 언어가 표준어가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양해지고 지금까지도 중국인, 인도인, 중동인, 유럽인 등이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시작이다.

‘202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1.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은 ‘202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을 알려온 바, 동포단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2020년도 수요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재단이 운영하는 「Korean.net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는 바, 동 시스템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방향 및 지원불가 대상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조사 계획

○ 대상 사업 : ‘20.3월~’ 21.2월말 기간 내 개최되는 동포단체 사업 및 행사

○ 수요조사 일정(한국시간 기준)

– 동포단체 신청 : 2019.11. 20(수) ~ 2020.1.24.(금) <50일>

○ 세부내용 : 202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참조

나. 온라인 지원신청 안내

○ 접속 사이트 주소 : www.korean.net

○ 주요내용

– 동포단체 : 사업별 정보 확인 및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2020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 온라인시스템 이용

*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 · 보완 불가
* 별도 양식이 없는 붙임서류는 단체별 · 사업별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첨부해야하며, 붙임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붙임자료 및 지원신청서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공관 제출 요망
* 2019년도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차년도 지원 불가(영수증 미첨부 포함)

다. 추후 수요조사 별도 시행 예정 사업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인회관 건립 지원

라. 문 의

○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전화 : +82-2-3415-0187, +82-64-786-0297 <한국시간 09:00~18:00>

– 이메일 : pms01@okf.or.kr

※ 수요조사 관련 주요 공지사항은 korean.net을 통해 안내 예정

JIKS

JIKS, 2020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모집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수학 · 과학 분야의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설영재교육센터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본 영재센터에서는 수학 · 과학 · SW 교과활동을 연간 100시간 운영하며 캠프, 특강, 산출물 발표대회 등을 포함하여 학년별 연간 총 126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4시간씩 이뤄지며, 프로젝트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산출물로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배운 내용을 보충 심화하고 인성을 기르는 영재캠프도 연 2회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20학년도 학생선발은 1월에 진행하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3학년~8학년 총 45명의 학생으로 타 학교 학생도 응시가능하다.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1월 중순, JIK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JIKS, Sahabat Anak 자선활동을 통해 나눔 실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지난 11월 1일 『집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센터 Sahabat Anak』을 돕는 자선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JIKS 초등학생들이 소외된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기부와 봉사활동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Sponsored Silence, Sponsored Walk, Basketball Shoot, Penalty Kick, Swimming Replay, Paper Chain Making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중에서 각자 원하는 종목을 신청하여 활동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일정 금액을 스폰서로부터 기부를 받아 모금활동에 참여하였다.

본교는 모아진 기부금으로 Sahabat Anak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학생 회장단을 통해 이번 달 15일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자선활동에 참가한 서가은 학생은 “즐겁게 참여한 스포츠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 수 있어서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하여 JIKS 학생들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심을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즐거움을 배워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JIKS

2020학년도 JIKS 초등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0학년도 초등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아동이다.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면접을 통해 학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입학이 가능하다.

약 45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성과 수업 능력을 갖춘 한국인 교사들과 영어권 원어민 교사들이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교육과정에 기반 한 뿌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한국사, 전통 가치관·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Science, Math, LA, PBL의 영어교과를 주당 13시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A수업은 캠브리지 교재를 이용한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PBL(Project-based learning)은 학년별 4개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원어민 부담임제, 예체능 원어민 수업, 인니어수준별수업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외국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JIKS는 특색사업으로 학년별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토론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과 토의·토론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전 학년 코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 배양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 학년 동아리 활동 실시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별히, JIKS영재교육센터(초·중등 통합기관)에서는 수학과 과학 기반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JIKS는 예비 입학생 학부모를 위한 입학 및 JIKS 초등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회를 2019년 12월 11일 9시~11시 본교 나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JIKS교육에 관심이 있는 예비 학부모님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원서는 행정실 및 한국 슈퍼마켓에 비치되어 있고, 학교 홈페이지 http://jiks.com [알림마당]-[입학안내]-[입학서류] 에서도 출력 가능하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떤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어느 때부터인가 이메일이 의미 없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로 끝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진심 어린 '고마워' 는 기적의 한마디(kata ajaib)이지요. 어떨 땐 소리보다 글자가 더 와 닿을 때도 있고요. 세상엔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 슬프지 않나요? 연말이니깐, 한해 동안 고마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훈훈해질 것 같아요. 그런 인도네시아 친구, 동료, 파트너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요? 인니어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연말에도 열공~!
실력을 쑥쑥 키우는 질문은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깨알 정보 ☞ 반다 아체 끝자락에서 보이는 사방(Sabang)섬에서 횡단해 동쪽에 있는 파푸아 므라우케지역까지가 5,245km.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가 5,271km.

바하사로 수다떨기

① Sani : Terima kasih Tur, selalu menemani aku ke mana-mana.
Fathur : Ah, kayak siapa aja.
사니 : 뚜르~ 항상 여기저기 같이 가줘서 고마워 (항상 함께해줘서 고마워)
파뚜르 : 에이참~ 남처럼 왜그래~(우리가 남이가~)

② Sani : Terima kasih selalu ada di saat aku membutuhkanmu.
Tia : Sama-sama, Mbak. Aku senang bisa membantu Mbak.
사니 : 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띠아 : 저도 고마워요 언니.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③ Eva : Pak Kim, terima kasih banyak ya atas perhatiannya. Pak Kim (adalah) orang Korea yang paling baik yang pernah saya kenal.
Pak Kim : Terima kasih kembali. Jaga kesehatan ya. Eva sudah seperti saudara bagi keluarga kami. Jadi jangan sungkan kalau butuh bantuan ya.
에파 : 관심 가져주셔서(배려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Pak Kim 은 제가 아는 한국사람 중에 제일 좋은 분이에요.
Pak Kim : 저도 고마워요. 건강 유념하세요. 에파는 우리 가족에게 이제 형제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얘기하세요. 알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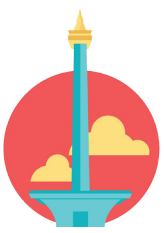
④ Indra : Bu Sundari, saya beruntung kenal dengan orang sebaik Ibu. Semoga saya bisa membalas kebaikan Ibu.
Ibu Sundari : Saya yang berterima kasih. Selalu dibantu sama Mas Indra. Saya doakan agar di tahun depan rezeki buat keluarga Mas Indra bertambah.
인드라 : Bu Sundari같이 좋은 분을 알게 돼 운이 좋아요. 잘해주신만큼 제가 보답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Ibu Sundari : 제가 고맙지요. 항상 Mas Indra가 도와주니까요. 내년에 Mas Indra네 가족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기도할게요.

⑤ Yogi : Terima kasih sudah mempercayakan saya untuk menjadi sopir keluarga Ibu Park. Semoga keluarga Ibu sehat selalu dan bisnis Ibu sukses selalu.
Ibu Park : Ya, terima kasih Pak Yogi. Kami pun merasa beruntung dapat pengemudi yang baik seperti Pak Yogi. Bapak selalu disiplin dan tidak pernah mengecewakan kami.
요기 : Ibu Park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믿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도 늘 잘 되시길 바랍니다.
Ibu Park : 감사합니다. 저희도 Yogi 아저씨처럼 좋은 운전사를 얻을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규칙도 잘 지켜주시고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⑥ Bu Noni : Terima kasih ya San, kuenya. Enak sekali. Kok tahu saya suka cokelat?
Sani : Tahu dong. Senang kalau Ibu suka. Terima kasih kemarin sudah menemani saya ke rumah sakit.
Bu Noni : 케익 고마워 사니야. 정말 맛있더라. 내가 초콜렛(맛)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사니 : 알죠. 좋아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병원 같이 가주셔서 감사해요.

⑦ Bu Kim : Terima kasih ya makan malamnya. Benar-benar enak banget. Piringku sampai bersih sekali. Anakku juga nambah terus.
Tina : Saya yang berterima kasih Bu. Kapan-kapan main ke rumah saya lagi ya.
Bu Kim : 저녁 식사 고마워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싹싹 비워 먹었네요. 우리아이도 몇 번이나 더 먹었는지 몰라요.
띠나 : 제가 감사하죠. 저희 집에 언제 한번 또 놀러오세요~

⑧ Tina : Apa ini? Kok repot-repot?
Heru : Telur asin dari Jawa Timur. Suka enggak?
Tina : Banyak banget. Makasih ya Ru. Selalu ingat aku.
띠나 : 이게 뭐야? 뭐하러 이런거 다 가져왔어?(번거롭게 뭘 이런걸 다~)
헤루 : 동부자바에서 가져온 telur asin (짠 계란)이야. 좋아해?
띠나 : 많이도 가져왔네. 고마워. 항상 내 생각해 줘서.



감사인사표현

♧ 항상 도와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banyak selalu membantu dan memberikan perhatian kepada saya.
(마음을 쓰다는 '관심을 주다' 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
Rasanya sejuta ucapan terima kasih tidak akan cukup.

♧제가 빚을 많이 졌네요 (신세를 많이 졌네요)
Saya berutang banyak pada Bapak/Ibu. (Saya berutang banyak sama Ibu)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신에게 감사해)
Saya sangat bersyukur punya teman seperti kamu.
(더 캐쥬얼하게 얘기하면 Syukur banget punya teman kayak kamu)

♧저희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Terima kasih selalu menjaga anak-anak saya dengan baik.
Terima kasih selalu menjadi suster yang baik buat anak-anak saya.

연말에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몇가지 표현들은 한국인들은 자주 쓰지만 인니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한 인니어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으니 활용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Waktu berjalan sangat cepat.

♧해가 바뀐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요.
Rasanya baru kemarin kita menyambut tahun baru. Sekarang kita sudah di penghujung tahun.

♧한해 마무리 잘 하세요.
Semoga semua kegiatan di akhir tahun berjalan lancar.(연말에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란다)

♧벌써 올 한해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왔네요.
Tidak terasa kita sudah akan memasuki tahun baru.
(벌써 새해를 맞이해야 하다니… 어느새 그렇게 되었네요)

♧새해에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Semoga apa yang diinginkan tercapai semua pada tahun baru.
Semoga semua keinginan Bapak/Ibu dapat terwujud tahun baru.

♧2019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네요.
Tahun 2019 tinggal hitungan jari(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며칠 남치 않았네요).
Tahun 2019 tinggal beberapa hari.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Semoga tahun depan penuh rezeki.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Semoga tahun baru membawa harapan baru.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Semoga kesuksesan selalu menyertai Bapak/Ibu.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또 나이를 먹네요….
Saya mau waktu tidak pernah berjalan. Tahun baru, tambah umur.

♧Good Bye 2019! Welcome 2020! Selamat Jalan Tahun 2019! Selamat Datang Tahun 2020!

♧인니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은 이런거예요 : 내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Selamat tahun baru 2020. Semoga diberikan kelancaran dan kesuksesan buat kita semua.

인터넷 바다에서 퍼온 깔깔깔

♧ Kehidupan di dunina itu sebentar, sebentar–sebentar megang duit, sebentar lagi gak punya duit, sebentar lagi kita senang, sebentar lagi kita sedih, sebentar kenyang, sebentar lapar… eh gak terasa sebentar lagi pergantian tahun, selamat tahun baru, semoga tahun baru bisa lebih baik dari tahun lalu.

♧Pantun : 라임 맞추기 좋아하는 인니 사람들 ^^
Jalan–jalan naik delman bareng Siti
Menikmati pemandangan indah tak henti–henti
Tak terasa tahun akan berganti
Semoga bahagia di tahun 2020 nanti

☞ 인니어가 궁금하면? 여기로 nusantara817@daum.net

차와 건강

최근에 세계적으로 커피가 빠르게 확산되어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겼다.
커피 한 잔 값이 식사 한 끼 값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커피 향과 맛에 취해 푹 빠져 있다. 하지만 건강에는 아무래도 "차" 보다는 못한 것 같다.
사람의 개성이 다르듯이 식품도 종류에 따라 성분이 다르고 향기와 맛이 독특함으로, 그 특성을 잘 알고 현명하게 식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른바 여러 가지 성인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맛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 미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다 보니 고혈압, 당뇨병, 간장병 등이 많아진 것이다.
"차"가 성인병과 건강 유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차나무의 어린 잎으로 만든 차는 4천 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지닌 기호음료로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대사회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차의 음용이 계속되어 온 것은 단지 기호음료로서 가치 이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갖는 건강음료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며, 더구나 오늘 날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차의 효능이 현대과학의 발달로 과학적으로 규명됨에 따라 보건 음료로서의 가치도 재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100여 년 전 신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차가 전래되어 신라 말기와 고려시대에는 찬란한 차 문화를 이루었으나 조선시대에 일시 쇠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급을 위한 차의 재배와 생산에 대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점차 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차가 갖는 사회·문화적인 기능과 더불어 다양한 약리적 효능에 의해 차의 소비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차가 생활화된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차는 기호음료일 뿐만 아니라 보건 음료로서도 보다 가치가 커 차의 항암효과, 고혈압 및 동맥경화 억제 작용, 노화 억제, 당뇨병 억제, 비만방지, 충치 예방 및 구취 제거, 알칼리성 체질 개선 등 여러 효능에 대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서 차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식생활 습관 중에서 육류나 생선을 굽거나 태워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들이 타면 많은 발암 물질이 생기게 된다. 이때 녹차를 마시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 외에도 녹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고혈압 및 동맥 경화 예방

차잎 중에는 카테친 성분, 비타민 C, 엽록소 등의 색소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 지방 성분도 효율적으로 배설하게 한다.

2. 노화 억제 효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 중에는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 했을 때 생기기 쉬운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 있다. 과산화 지질은 세포 조직 중에서 세포막을 파괴시키므로 노화가 일어나는데 최근 녹차 중의 포리페놀 성분이 노화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3. 알칼리성 체질로의 개선 효과

산성 식품은 대개 칼로리가 높고 체내의 신진 대사 과정 중에서 황산이나 요산, 탄산 등을 배출하여 체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몸의 피로감이 증가되고, 감기몸살, 고혈압, 동맥 경화성 질병과 뇌일혈, 위궤양 등의 질병이 유발되기 쉬운데, 녹차 중에는 우리 인체의 산성화 방지에 적합한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녹차를 장기간 상용화할 경우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개선시키게 된다.

4. 당뇨병 억제 효과

우리가 일상 섭취하는 음식물은 주로 전분이나 당분이며, 이것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뒤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에 의해 신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과량의 포도당은 간장이나 피하조직에서 글리코겐이나 피하 지방으로 합성되어 저장된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당분의 저장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포도당이 요 중으로 배설되어 버리고 혈액내의 당성분이 높아지게 되어 입안이 말라 수분 또는 당분을 찾게 되는 당뇨병이 발생된다.
차잎 중의 다당류 성분이 인슐린의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차를 보리차처럼 상용하면 당뇨병 억제에 도움이 된다.

5. 비만 방지 효과

오늘날 식생활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해지면서 육식 중심의 서구식 고칼로리 식생활 패턴을 무조건 선호하다보니 영양 부족이 아닌 영양 과다로 비만증이나 동맥 경화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만 현상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음식물이 필요이상 많을 경우 과잉의 영양분은 간장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나 손, 발 등의 피하 지방에 쌓여 뚱뚱해 지게 되는 것이다. 식사 전후에 또는 식간에 항상 녹차를 음용하면 지방의 축적을 감소 시킬수 있고 이뇨 작용 등에 의해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어 체중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구나 차잎 성분 중에는 지방 분해 작용이 있어서 다이어트 음료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6. 담배의 니코틴 해독 작용

니코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 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수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관지염이나 목이 아프게 되고 니코틴 타르 성분에 의해 폐암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은 2:1 정도로서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 C를 파괴하는데 녹차는 레몬보다 5배나 높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7. 식중독 예방 효과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것 등은 식중독 세균이나 이들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식중독 증세가 있을 때는 바로 차를 진

하게 끓여 마시면 차잎 성분의 폴리페놀과 식중독 세균 또는 독소 성분이 결합되어 해독 작용을 나타내므로 식중독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8. 충치 예방 및 구취 제거 효과

충치는 구강내 번식하는 구강 세균이 치아를 파먹기 때문에 일어나며, 이들 세균이 불소에 약한 것으로 발표되자 치약에 불소를 넣어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 불소 성분은 동백 나무 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차잎 중에는 어린 잎보다 경화된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차를 많이 마실수록 충치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9. 피부 미용 효과

젊고 탄력있는 피부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변해 준다. 일반적으로 산성의 혈액인 사람이나 질병에 오래 시달린 사람들의 피부는 근육의 탄력성이 적고 거친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질을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상적인 녹차는 풍부한 무기질에 의한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억제하고 피하 조직에 탄력성을 부여해 주며 보수성을 유지해 주도록 하고 특히 피부를 희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항염성 및 항균성질

차의 폴리페놀 성분은 위궤양이나 위 점막 출혈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폴리페놀 성분은 우롱차나 홍차와 같은 산화형 보다는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성 효과가 높다고 한다.

11. 변비 개선의 효과

일반적으로 변비라고 하는 것은 변의 통과가 나빠 매일 규칙적인 배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이나 4일에 한 번 정도 배변하는 상태를 말한다. 변비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장관의 긴장성이 약해져 수축 운동이 충분하지 못해 내보내는 힘이 약한 이완성의 변비이고, 신경질적인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차잎 중의 폴리페놀 성분은 위의 긴장성을 높여 위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관에 대한 긴장성을 풀어주어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

12. 천식에 대한 효과

현대 의학이 매우 발달한 지금까지도 바이러스에 유효한 감기약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차를 끓여 마시면 그 증상이 가벼워진다. 또한 천식은 기관지가 수축하여 공기의 출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차잎 중에는 기관지의 수축을 억제하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 기관지를 확장시켜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13. 회춘제조의 차술

녹차잎 100g에 얼음 사탕 400g을 입구가 넓은 병에 넣고 술 1.8 리터를 부은 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4~5일이 지나면 술에 차잎 색깔이 나오고 말차같은 향기가 나게 된다. 색깔이 점점 짙어지므로 차잎은 1 주일 안에 꺼낸다. 가능한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않는 편이 좋다. 차의 정수를 함유한 이 술은 밤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다.

14. 소주의 숙취 해소

소주를 마실 때 오이 등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 마시기 좋고, 머리도 아프지 않은데, 오이보다

녹차는 독특한 맛을 낼 뿐 아니라 주독 해소 효과도 있다.
2홉 소주 한 병을 작은 주전자에 붓고, 녹차 티백 2개를 넣어 약간 방치해서 차잎 성분이 우러나게 한 다음 마시면 녹차의 녹색이 우러나와 맛있는 차술이 된다.

생활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바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연과의 접촉이 적어지며 긴장과 갈등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며 성인병에 걸리기도 쉽다. 그러나 바쁜 현대생활 중에서 한 잔의 녹차는 자연의 신선한 멋을 느끼게 해주며 우리의 생활 리듬을 새롭게 하여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녹차는 천년 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음료일 뿐 아니라 약리적인 효능이 뛰어난 건강 음료이다. 녹차를 생활화해서 건강을 유지합시다.

참고 문헌: 차와 건강 (유 태종 박사 저)

한인 동포 여러분 그동안 건강 칼럼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건강 칼럼을 마감하오니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제공

한인회한인니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오랜 시간 흘러서 만난 오늘

홍윤경 (Pleats Kora Indonesia 대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론 시행착오 속에서 아파하고, 때론 일상이 주는 소소함에 만족하면서 나는 내 날들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내 삶의 날들은 몇 가지 키워드로 남아 나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한다. 그 키워드는 내 삶의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의 단어들이기도 하다. 소소한 일상, 마음속의 가족, 들뜨지 않은 온유함,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 있는 역사. 이 단어들을 내 삶의 단어로 만나기까지 나는 여기 저기 이 나라 저 나라를 참 많이도 흘러 다녔다. 어느 나라를 가든 난 그곳의 사람들과 역사에 먼저 눈을 열고,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나에게 역사란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이니까. 그래서인지 나는 어느 나라를 잠깐 출장을 가든, 한가한 여행을 하던 지금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나라에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박물관을 먼저 찾아가 만난다. 지금은 화석처럼 박물관 한 자리에 우두커니 소리 없이 남아 있지만 옛 그림들과 조형물들 그리고 옛 사람들이 애지중지 사용하다 간 물건들이 상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나에겐 흥미롭고 즐거움으로 가는 통로들이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남아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드시 연결되는 질긴 고리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박물관에는 모든 개개의 사람의 이야기와 그 역사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전 만들어 갔던 이야기와 아직 만들어 가야할 이야기는 오늘도 유유히 흘러간다.

인도네시아는 내가 살아가는 6번째의 나라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이다. 처음부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 3년 즈음 살고 난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지쳐있었다. 일상을 벗어나지 못한 어느 평범한 날의 하늘이었다. 시끄러운 시장 통에서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 질긴 더위와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급히 다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 탄 바자이의 소음 속에서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었다. 양 쪽 길 가로수 사이로 들어온 그 하늘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깨달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뱉은 한 마디. 아 행복하다. (그 시절 내 상황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놀라웠다. 행복하다니. 열대우림의 나뭇가지들 사이로 갑자기 내린 반가운 소나기처럼 행복은 그렇게 내게 엄습해왔고, 인도네시아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사랑하는 제 2의 모국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따스함으로 다가오니 내 눈을 돌려 인도네시아를 다시 볼 수 있었고, 그 때부터 난 인도네시아의 박물관이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를 찾아 쉼을 가지게 되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보니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장르의 재미있는 박물관들이 있고, 마음을 울리는 여러 곳의 문화적인 장소가 있었다. 그곳들은 여기저기 사람 안에 스미고 흘러서 가만가만 그들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적도의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8월의 어느 날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문화탐방으로 인도네시아 국립갤러리 박물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를 관통해 흐르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간 많은 작가들이 그들의 삶을 오롯이 화폭에 담으며 많은 얘기들을 남기고 또 남겼다. 그들이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한 폭의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간절히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작가 수조요노 (S. Sudjojono). 그는 조국의 앞날을 아프게 희망하며 그의 마음만큼이나 크고 웅장한 화폭 가득 그가 그토록 원하는 조국의 미래를 담았다. 두 소년이 저 멀리 인도네시아 조국의 산천을 바라보고 있다. 작가의 섬세함과 열망은 그 두 소년의 눈빛과 어깨 그리고 손에 반영되어 인도네시아의 자립과 번영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속의 두 소년들이 두런두런 주고받는 얘기가 들리는 듯하다.

“ 형 우리나라는 이제 어디로 갈까? “ 음… 우리나라는 우리가 늘 꿈꾸어 왔던 대로 서로 나눠주고 함께 행복한 그런 나라로 나아갈 거야”

너무나 큰 화폭이라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바라보아야 들리는 이야기를 뒤로하고 발길을 옮기니 재미있는 그림 세 점이 내 시선을 왼쪽 오른쪽을 바쁘게 움직이게 한다. 세 작가의 작품을 한 주제에 담아 40년대 50년대 60년대의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상을 나타내는 그림 세 점. 배치도 재미있지만 그림이 남겨주는 여운이 인상에 남는다. 재래시장을 모티브로 그들 작가는 그 시대상을 너무나 처연하게 그려냈다.1940년대 아직은 네덜란드 식민지배 하에서 인도네시아 여인들의 고단한 삶이 드러난다. 어두운 색들이 저마다 한숨소리인 듯 신음소리인 듯 흘러 다니고 그림의 여백이 마치 나에겐 그들의 텅 빈 일상을 드러내는 듯했지만 시간은 흐르고 삶의 길은 소리 없이 이어져 60년대의 여인들은 웃고 있다.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해졌고, 여인들의 자세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쭈그리고 웅크렸던 40년대를 넘어서 적당히 살집도 붓고, 당당히 서서 돈을 흔들며 웃고 있는 여인들의 표정에서 살짝 설익은 욕심도 보인다.전체적으로 어두운 컬러에 흰색과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곧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는 듯한, 한 꽃 그림 앞에 나는 멈추어 섰다. 인도네시아에 살면 제법 익숙하게 보는 꽃. 이곳 사람들의 삶과 죽음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꽃 캄보자. 어찌 이 그림 앞에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나른한 평온함과 수줍은 따스함 그래서 대체적으로 착할 수밖에 없는 심성들이 이 꽃에 묻어나 있다. 발리에 가면 가는 곳 마다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만들어 걸어주는데 바로 이 캄보자 꽃이다.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두운 색채들로 화폭 가득 쓸쓸하고 먹먹한 향기를 드러내고 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좌절과 절망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함께 했을까? 이 그림에는 고르고 또 고른 숨처럼 간결한 시가 한 편 적혀 있다. 시인은 말한다. 삶과 죽음은 반복되는 것이라고.

전시장 쪽을 돌면 한 점씩 자화상과 초상화가 가지런히 걸려있다. 작가 하리야디 수마디자야 (Harijadi Sumadijaja)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 작가는 누가 봐도 나, 예술가예요. 나, 좀 시대를 별나게 사는 남자예요 하는 듯한 옆모습으로 살짝 예술가 특유의 건방짐과 낯가림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덜컥 내 가슴을 내려앉게 만든 그림 한 점. 남자의 눈이 너무 아프다. 잔뜩 충혈 된 그 눈은 너무 먼 곳을 보는 것 같다. 아파서 너무 아파서 피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이 초상화는 한 세대를 너무나 찬란하고 뜨겁게 살다 요절한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Chairil Anwar (하이릴 안와르)를 그린 것이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설명한다.

이 그림은 보는 거리에 비례해서 다가오는 감정이 다르다고. 모처럼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 되어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한 참을 멍하니 본다. 아... 모르겠다. 그가 뭘 말하고 싶은지? 무엇을 나에게 알리고 싶은 건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엔 성큼성큼 그림 가까이 다가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기도하고, 코를 대며 냄새도 맡아 본다. 난 정말 예술적 소양이 없구나. 도대체 무엇을 느끼라는 것일까? 왜 가까이에서 감상하면 할수록 그림이 더 잘 보인다고 했을까? 포기하고 돌아설까 하다 초상화 주인공인 시인의 눈길이 닿는 그 곳에 서 보았다. 아, 그가 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냥 가슴으로 알게 되는 순간 좌절과 절망의 나날 속에서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며 온 몸으로 그가 쓰는 그 글을 앓았구나. 그의 하루하루가 어떠했는지 그 몽환적이고 고독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다. 충혈된 그의 눈은 조국의 현실과 그 조국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한 젊은 문인의 비루한 날들을 너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1960년대의 시대상과 정치상황을 회화적으로 풍자한 그림 앞에서는 대한민국의 한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다. 삼원색의 현란함이 주는 강렬함이 그러했을까?한 나라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언제나 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권력에 집착하는 집단의 광기는 빨간 파랑 녹색의 개들이 화폭 여기저기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힘없는 민중들은 그저 그 자신들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하얀색의 거위로 표현해 놓았다. 화가의 기발한 발상과 풍자에 경의를 표한다.
2시간 남짓 그림 하나하나와 인사하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국립갤러리를 무엇인가에 홀린 듯 흘러 다닌 오후 갤러리 문을 나서며 내가 만난 것은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기쁨으로 그 날들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각자의 역사를 그리고 시

대의 역사를 묵묵히 살아낸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도 아니며, 막연하게 와 닿는 먼 훗날 이야기도 아닌 바로 오늘 이곳의 이야기였다.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나라의 주권을 위해 죽어가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당당한 나라로 발전해 가길 바라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빼앗고 지키려하고, 각자 주어진 대로의 운명을 치열하게 살다가 간 자들이 딛고 선 이 땅의 이야기였다.인도네시아 땅의 이야기들은 대한민국 땅의 이야기와도 닮아 역사의 무서운 무게감을 안고 이곳에서 만나 마침내 하나가 된 듯 느껴졌다.그리하여 마음에 불편하거나 거부감 없이 담담하게 이방인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각인되는 오늘 하루는 인도네시아의 하루도 대한민국의 하루도 아닌 그냥 우리의 오늘 하루였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일상들이 흘러 흘러 우리네 삶이 되고, 우리네 삶들이 꾸역꾸역 흘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또 휘몰아치며 흘러서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오늘이 되는구나. 그림이 내게 읽어준 이야기는 내가 손꼽는 다섯 키워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들의 오늘이었으며 지금 내가 여기서 맞이하고 있는 오늘 하루는 그저 우연히 뚝 떨어져 생긴 하루가 아니라 그 옛날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귀한 하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자각하게 하는 긴 하루였다.다음 문화탐방을 기대하며 국립갤러리 문을 나서는 인생의 한 날 내 소풍의 날에 잘 놀았다는 충만감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 행복하다... 중얼거려보았다.

차세대 김종헌 대표,
첫 한인단체장 OKTA 회장에 선출

지난 11월20일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지회(이하 Word OKTA. 회장 배응식)는 자카르타 근교 팜힐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19 정기총회에서 김종헌 대표(무궁화 유통)를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배응식 회장은 "지난 4년동안 자카르타 지회장을 맡아 집행부와 함께 매년 차세대를 배출하고 옥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면서 "4년간 집행부 협조와 고생에 감사하고 차세대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활기찬 월드옥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김종민 대사관 총영사는 축사에서 "5대 신임회장 배출은 현 지회장의 수고의 결실이며 신임 김종헌 회장 중심으로 소통하는 조직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우재 명예회장은 "World OKTA가 많은 한국 상품을 판매해 조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인도네시아 지회 회원도 사업이 잘 돼서 한인니 교역에 바탕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중심단체가 되고 있다. 차세대 신임회장 출범으로 월드옥타 인도네시아가 더욱 진취적으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 고 축하했다.

송창근 회장도 축사에서 "이제 한인사회 주역은 50대로 자리 잡고 있다" 고 전했으며, 양영연 전 한인회장 겸 월드옥타 고문은 "차세대가 단체장이 된 것은 월드옥타가 처음" 이라며 청년옥타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했다.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는 지난 2007년 2월 설립이후 인도네시아 기성세대와 차세대 한인 경제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12년에는 월드옥타 본부 제17대 회장에 김우재 회장이 당선되었으며, 지회 설립이후 12년동안 600여 차세대 경제사관을 배출하는 차세대 무역스쿨은 청년 그룹에 필수코스가 되고 있다.

지회장 이취임식에서 김종헌 신임회장은 "월드옥타 자카르타 지회가 2007년 2월 지회설립이후 12년을 맞고 있다. 햇수로 틴에이저이지만 사춘기 티내지 않고 선배님께 잘 배워서 후배를 아우르는 단체로 활성화 시키겠다" 면서, "자카르타 지회가 80명 정회원과 차세대 600명으로 구성된 한인단체 발돋움하게 된 것은 그간 1대에서 4대에 이르기까지 회장단의 수고의 결실이다. 본부 슬로건처럼 '함께하는 OKTA, 힘있는 OKTA, 자랑스런 옥타', 즉 자카르타지회가 최고 OKTA가 되도록 응원해 달라" 고 전했다.

(제공:한인포스트 경제부)

독도 합동홍보단 창단 1주년 인도네시아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 케이팝 경연대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는 11월 16일, 롯데 애비뉴 아이스팰리스에서 '독도 합동홍보단 창단 1주년 인도네시아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 케이팝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 배연자회장은 "여기 모인 모두가 독도 홍보위원이라는 사명감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히 각 대학에서 뽑힌 미스 독도가 또한 독도 홍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해주길 당부했다. 전조영 공사는 "이제는 다양한 채널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연을 통해 준비과정에서의 노력은 귀한 경험이다. 경쟁을 떠나 즐거운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축사했다. 채영애 한인회 수석부회장은 "한국에 관심있는 인니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과 횡포를 저지하는 감시자로의 역할을 하게 한다" 며 이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진 미스 독도 제관식에서는 선발된 6명의 (진, 선,미, 족자르타, 수라바야, 스마랑) 여학생이 행진을 하였다.
(미스독도진 Gracia wynnie (UI))

2부 한국어 말하기대회와 케이팝경연은 출전팀을 응원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함성으로 성황을 이뤘다.

“파푸아 교민 비행기 세 번 타고 투표”… 재외선거 개선요구 봇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총선 대비 재외선거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교민들은 주로 ‘선거 편의성’ 개선 요구에 입을 모았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를 전날부터 개시했다. 국외 부재자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뜻한다.

반면,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을 뜻하며, 이들은 영구명부제에 따라 상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하거나 한국대사관에서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서현식 경남도선관위 선거과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주재국의 선거 상황을 교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선거 절차 · 제도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훈 보고르 한인회장 겸 인도네시아 재외선관위 부위원장은 “대선과 비교해 총선은 투표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기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파푸아 교민이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자카르타에 투표하러 온 것처럼 멀리서 오는 교민에게는 교통비 일부 보조 등 적정한 배려가 있어야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주인니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는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투표소를 늘리는 것”이라며 “예산이 문제인 것을 알지만, 이왕이면 재외

11월 15일(2월 15일까지)에 문을 연 대사관 영사과 신고접수처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반~ 5시 까지접수)

선거가 도입된 이상 많은 교민이 참여하도록 물리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제의 재인니 한인청년회장은 “미국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 투표를 하려고 한다”며 “IT 강국인 한국도 전자 투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7천개 섬이 동서로 흩어져 있어 3개의 시간대가 존재한다. 하지만, 투표소는 자카르타의 주인니한국대사관 1곳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당시 재인니 한국 교민은 4만명으로 추정됐으나, 투표 참여를 위해 등록 · 신고한 선거인 수는 5천856명이고 실제 투표자는 4천369명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교민이 4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투표소가 대사관과 땅그랑까지 2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상 한국 교민이 2만3천명에 불과해 총선 투표소가 대사관 1곳으로 줄었다. 교민 수가 줄면서 선거관 파견 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선 한인포스트 대표는 “우편투표를 허용하든지, 재외국민 대표로 비례의석을 할당하든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연합뉴스)

제6회 재인니 자카르타 한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글: 전주영(학생기자 JIS 12)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많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의사가 작품으로 투영되면 우리는 그것을 흔히 '예술' 이라고 한다. 작가는 예술 작품을 경유한 소통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만족과 위안을 제공한다. 음악은 그 중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한 종류이다. 고요에서 역동까지, 기쁨부터 슬픔까지, 가장 넓은 종류의 감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만족을 느낄 수 있던 계기가 이번 연주회였고 위안을 얻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노래의 박자에 맞춰 나도 모르게 음정을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2일, 올해로 6번째 열린 Korea Indonesia String Orchestra (재인니 한인 스트링 오케스트라, KISO)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이다. 아마추어로 시작하여 연주해오고 계신 분들과 악기를 갓 연주하기 시작한 초보들까지, 다양한 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하나의 악단으로 어우러져 현악기를 켜는 모습은 흡사 몇 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연습하는 음악 전공자들을 방불케 하였다.
헨델의 '수상음악' 중 알라 혼파이프로 운을 뗀 악단은 자칫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현대에 맞춰 맛깔나게 재해석했다. 곧이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k-pop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Fake Love'를 현악기로 긴장감 있게 재해석하며 연주회는 절정에 다다랐다. 곡의 끝과 함께 탄성과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고, 수많은 관객들은 하나같이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다. 마치 준비 되어있었던 듯, 앵콜곡인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의 OST가 연주되기 시작하였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활들과 흩날리는 머릿결은 악단이 음악에 심취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기에는 충분했다.

한때 바이올린을 곁에 두었던 나로서는 이 연주회가 인상깊을 수밖에 없었다. 감미로운 멜로디를 완성하는데 들어갔던 값진 수고와 노력, 땀, 눈물이 눈에 선하게 보였다. 또한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 서로의 열정을 조화롭게 발산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협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 편의 걸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 동포들이 쏟아부은 에너지가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 A STAR IS BORN

버카시, G5 제인

2019.11.16

내 꿈은 수의사~
도전! 한번 길들여 볼래요~

#미래의 제인구달 #ㅇㅇㅇ 나의 비어드드래곤
#어서와사람은처음이지? #파충류 입문기

좋아요 1498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ikcs.kr

333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탐방> 4
한인 역사 속의 종교공동체 탐방 ③개신교편

인도네시아에서 약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인들의 마음의 창이 되었습니다. 가르치고 증거하며 한국학교 설립의 모체가 되기도 했고, 한국거류민회 활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개신교는 여타 종교와 어떻게 상생하며 공존해 왔을까요? 이번 탐방을 통해 인도네시아 한국 개신교의 뿌리와 그들의 열망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8:30~16:00
집결: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8:30
탐방지: 연합교회<스틴신학교, 임마뉴엘교회, 구교육관(Radio II), 구선교관(끄망기산)> 참빛교회, 늘푸른교회(중앙교회) 주님의교회(구선교교회, 열린교회)
접수: 밴드

댓글: https://band.us/@ikcs
SMS/KT: 081-111-7230,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
*한인 100년사 편찬을 응원해 주세요.

상속법(Hukum Waris)(3)

(전호에서 계속)

11.4. 유류분 관련 법정 사항
11.4.1. 유류분 상속권은 청구해야 발생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자녀가 3명이 있는데 2명은 유류분을 청구하고 1명은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은 자식 1명은 유류분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며 유류분을 청구한 자식 2명은 유류분 유산 상속을 받는다.

11.4.2. 피상속인이 생존 시 유류분 상속권 보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법정 유류분에 포함된다.

11.4.3. 상속인으로 부적절 판결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상속권이 없다.

11.4.4. 상속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결정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상속권이 있다.

11.4.5. 남편 혹은 제2부인에게는 유언장으로 본부인의 자녀의 상속 몫보다 더 많은 증여를 금한다.

11.4.6. 피상속인의 부모의 유류분 몫은 피상속인의 자녀의 유류분 몫의 1/2이다.

11.4.7. 자식으로 인정받은 혼외자식은 본부인이 낳은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 몫의 1/2이다.

12. 상속인의 순위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12.1. 제1순위 상속인(Ahli Waris Golongan I)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법률상의 부부만 배우자로 인정되며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호적에 부부로 등재되어있지 않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12.2. 제2순위 상속인(Ahli Waris Golongan II)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인의 직계 존속(부모와 조부모)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2.3. 제3순위 상속인(Ahli Waris Golongan III)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2.4. 제4순위 상속인(Ahli Waris Golongan IV)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12.5.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수위로 되며 같은 순위에 있는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2.6. 배우자는 피상속자의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2.7.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12.8. 유류분 상속청구권의 시효는 30년이다.

13. 상속 결격자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한 사항 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 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의 자격을 상실한다.

13.1.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려고 한자.
13.2. 고의로 직계 존속 혹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3.3. 사기 또는 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한 자.
13.4. 사기 또는 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13.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14. 기여상속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결정시에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부모의 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오래 동안 근무하면서 부모를 도운 자녀, 부모의 채무를 갚아 준 자녀, 혹은 부모를 오래 동안 부양하거나 간호한 자녀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여분의 크기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기여의 시기, 기간, 방법, 내용,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참작한다.

15. 국제가족의 유산 상속

인도네시아의 상속법은 이원화 되어있다. 이슬람 신자에게는 이슬람 상속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카톨릭, 불교 및 힌두교)에게는 민법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상속법에서도 상속은 유언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명기하고,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상속법으로 처리하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 상속인 간에 재산 상속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면 해결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종교에 다르면 유산 문제 해결은 복잡해 질 수도 있다.

15.1. 사례 1

한인 A씨는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 별거 중인 부인 B씨와 성인이 된 아들 C씨를 한국에 두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업을 하다 만난 이슬람교인인 인도네시아 여성 이슬 D씨와 결혼하기 위하여 이슬람에 입교하고 이슬람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여 딸 2명을 낳아 살다가 병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타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사후에 발견됐다. A씨가 유언이 없이 갑작스럽게 타계한데다 고인이 한국 국적이지만 이슬람에 입교하여 이슬람 법에 따라 결혼을 하고 이슬람법에 따라 종교 사무소에서 발급한 결혼증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인의 유산은 이슬람법에 따라 모두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인 부인 D씨와 두 딸에게 상속되었고 한국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 B씨와 아들 C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으며, 시신도 인도네시아 가족이 거두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식으로 매장되었다.

15.2. 사례 2

한인 B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부인 C씨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 부인이 먼저 타계하였고, B씨도 이어서 타계하였다. 정확하고 치밀한 성품에 몇 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B씨는 타계 1년 전에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법무부에 등기했다. B씨가 타계하자 자녀들은 등기 유언장 내용을 검토하고 유산을 조사했다. 회사의 주식과 동산(정기저금, 자동차)과 부동산을 일부는 피상속인 자신의 명의로 하고 일부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피상속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유산 중 동산은 유언장의 내용대로 자녀 상속이 되었으나 부동산은 자녀들이 모두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부 매각하여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을 받았다.

16. 결언

대부분의 나라는 유언 상속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던지, 유족들에게 상속을 하던지,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던지, 상속 발생 시 고인의 재산은 고인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이 모은 재산이 자신의 사후 자신의 바라는대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심신이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언장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국적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비 요건을 갖춘 유언장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2019년 자카르타 주지사 Padmamitra+ Awards수상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와 코린도 사회공헌재단 이순형 사무총장

(제공:코린도 사회공헌재단)

2019년 11월 5일,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2019년 Padmamitra+ Awards상"을 수상했다. Padmamitra+ Awards는 인도네시아 CSR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자카르타 주지사의 주관으로 시상식이 이뤄졌고, 홀수 해에는 사회복지부 장관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올해 수상대상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로 다양한 CSR 활동을 해온 24개의 우수한 공공기업과 재단이 선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이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2017년부터 남부 자카르타 빤초란(Pancoran) 구역, 풍아드간 마을을 대상으로 수경 재배 및 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시스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도시 녹화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풍아드간 마을에서 Hidrofresh라는 지역 농민 단체에서 계속 진행하며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발전했다. 이에 2019년 말 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순형 총장(코린도 사회공헌재단)은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젝트이며, 이후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각각 조건 및 지역 문화에 따라 맞춤 진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은 게 큰 결실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하는 자리에서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상을 받는 시간은 2분 정도이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준 공공기업과 재단들의 수고는 몇 년에 걸친 시간이었음을 얘기하면서 우수 기업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Gubernur Provinsi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Piagam Penghargaan

Diberikan kepada :
Yayasan Korindo
(Non Badan Usaha)
Terpilih meraih :
Padmamitra+ Awards
Tingkat Provinsi DKI Jakarta Tahun 2019
Kategori :
Program Sosial yang memberikan
Dampak Berkelanjutan

Jakarta, 5 November 2019
Gubernur Provinsi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Anies Rasyid Baswedan, Ph.D

한인니문화연구원
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시상식을 마치고

조인정 (연구원 팀장 /
아시아태평양연구회 국제교육정책박사과정(ATMA JAYA))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깊은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제10회 인터넷문학상 시상식이 11월 23일 갤러리 인도네시아 까야(Galeri Indonesia Kaya)에서 열렸다. 한인니문화연구원이 한국인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 문학상은 어느덧 올해 제 10회를 맞이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벨라루스, 캄보디아, 모로코를 포함한 각국의 대사관과 마르따 띨라아르(Martha Tilaar)그룹대표, 그랜멜리아대표 등, 인도네시아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슬람문화단체 등 연구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가, 그리고 중국 여성협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을 넘어 참석한 세계인 모두에게 한국-인도네시아 문화예술의 화합과 공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상식 1부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2부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다.

짝사랑의 슬픔과 애틋함을 절규한 바탁지역 포크송 "Alsui Au " 공연으로 시상식의 문은 활짝 열었고,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님의 축사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님의 격려사에 이어 본격적인 수상자들이 시상을 하였다. 자카르타한국학교장, 코이카인도네시아사무소장, 주아세안대표부에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다.

약 150여 편의 공모작 중 일반부 12편, 학생부 13편이 심사위원 (최준 시인, 이덕주 문학평론가, 배동선 작가, 채인숙 시인)에 의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은 생활수기, 수필, 소설, 시로써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세계적 패션디자이너 하리 다르소노 (Harry Darsono), 만화예술가 밤비 밤방 구나완 (Bambi Bambang Gunawan), 유화화가 본단 수리아닝티아스 (Bondan Suryaningtyas), 브따위문화단체, 물따뚤리박물관, 위다얀또 갤러리, 에드윈 갤러리, 인한친선협회가 시상자로 초청되어 수상작을 시상,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자 한 수상자들의 노력의 결실을 격려했다.

사업가는 세상을 한 발 앞서고, 시인은 세상을 두 발 앞선다는 말이 있듯 한인니문화연구원의 10년 시간의 꾸준한 헌신과 노력이 문학과 예술의 불모지인 인니한인사회에 뿌리를 심고 단단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는 것을 이번 행사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공연 전부터 시상식장이 빽빽하게 가득 찼고 2시간의 공연 내내 여분으로 준비한 좌석까지 부족했는데, 이 또한 한인니문화연구원의 활동과 공헌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세계 각국의 관심과 역량 있는 인도네시아분들의 관심이 주목된 시상식 사이사이에는 축하공연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전통 춤과 악기연주가 번갈아 진행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꽃을 피웠다. 특히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한인무용단이 선보인 우아한 부채춤 춤사위와 국악사랑의 오묘한 대금ㅡ가야금 합주는 시상식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관객들은 무용단의 아름다운 표현을 카메라로 담아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한 편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로 지정된 수마트라 아체 (Aceh)의 가요족 (Gayo) 남성 무용수 9명이 악기 없이, '천개의 손' 으로도 알려진 춤답게 손으로 손뼉과 가슴을 치는 사만춤 (Tari Saman)은 남성미와 박력이 넘치는 동작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그리고 바탁 민족이 환영의 의미를 담은 그들의 전통춤 또르또르 춤 (Tari Tor–Tor)를 경쾌한 장단에 맞춰 출 때에는 시상식에 참석한 모두가 무대 앞에서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고 즐겼다. 자바 가믈란과는 다르게 높고 가파른 음율의 가믈란, 수마트라의 유명한 접시춤과 혼성팀으로 이루어진 힘차고도 우아한 빠당 Galombang Pasambahan춤을 감상하다보니 어느덧 2시간이 흘렀다.

성인부 대상 권남혁/ 학생부 대상 이정원

1부와 2부 시상식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공연예술단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관객들은 모두 화려한 문양과 색의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끄바야 (kebaya)나 바틱(batik)을 입고 있었는데 모두 손가락하트를 만들고 "사랑해요" 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그 시간 내게 있어 "한인니문화예술의 화합과 교류" 란 문학, 공연예술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이들에게 국한되어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인니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시상식장의 모든 이들에 의해 이행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현대적 감성에 녹아져 쓰인 글, 한국과 인도네시아 고유의 정서와 혼을 담은 전통 춤과 노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승화시킨 이날의 시상식은 인도네시아에 한국을 심고, 한국에 인도네시아를 심는 화합의 장이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니문화예술의 화합은 세계인들에게도 가치를 인정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 날의 시상식은 자카르타 도심 고층 빌딩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문화예술교류 활성화에 앞장서온 한인니문화연구원을 향한 인니교민사회 그리고 세계인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인니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속적인 서포트가 한인니예술화합이라는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인도네시아문학 제 6집> 출간기념식

적도에서 만난 또 하나의 세상 '문학'

글 : 강인수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고국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 갈 때면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회장: 서미숙)는 매년 회원들의 작품의 결실인 동인지 <인도네시아문학>을 출간하고 있다. 올해도 2019년 <인도네시아 문학>제 6집 출간 기념식을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에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한인 단체장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박시은 사회자의진행으로 2시간여 동안 문학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주)인도네시아 김창범 대사를 대신해 류완수 영사의 축사와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회장의 축사, 엄정호 (전)반둥 한인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서미숙 인니문협 회장의 인도네시아문학 발간사와 여성합창단 '아르떼' 의 축하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을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 참석 내빈 시 낭송으로는 2018년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수상작인 '유적에 핀 꽃' (문인기시인)을 강희중 대한체육회 회장이 비중 있게 낭송하였고 공광규 시인의 시 '아름다운 책' 을 한국자유총연맹 배연자 회장이 낭송해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으며 따뜻한 축하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문협회원들의 시 낭송과 동인지에 수록된 작품창작 노트를 발표하면서 행사는 깊어 가는 고국의 가을만큼 무르익었고 적도에서 만난 한인들 모두 하나가 되어 또 하나의 세상인 '문학' 에서 쉼을 얻는 아름다운 소통의 시간이었다. 2부에서는 오프닝 축시로 안선근 이슬람 박사의 자작시 '싱콩 카사바의 위대함' 이 감성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낭송되어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정선(한인포스트)대표와 한상재 칼럼니스트의 창작노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한인 100주년의 발자취와 감소되고 있는 한인동포의 위기를 되짚어보았다. 사람과 언어의 전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더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한인 역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좋은 사례를 열어주었다.

즐거운 포토타임으로 끝을 맺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모두가 '문학' 이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흠뻑 취해 한아름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갔다. 문학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이 한층 더 행복한 삶으로 물들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자료제공: 한국문협 인니지부)

‘교민작가’ 이영미 제4회 국립생태원 생태동화 공모전 대상 수상

국립생태원이 주최한 ‘제4회 국립생태원 생태동화 공모전(후원 환경부・소년한국일보・한국아동문학인협회)’의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차려졌다.

이날 국립생태원 이행만 경영관리본부장은 박용목 원장을 대신해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로 대상을 안은 이영미 작가에게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안겨주며 축하했다.

이 외에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두 명과 장려상 5명도 소년한국일보 사장상과 한국아동문학인협회장상 공동명의의 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21편이 접수됐으며, 그 중 9편의 수상작이 생태 동화책으로 내년 상반기 출간 예정이다. 이창건 한국아동문학인협회장은 시상식에서 “이영미 씨에게 대상의 영광을 안겨준 ‘맹꽁이를 찾아주세요’는 소심하고 수동적이던 주인공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맹꽁이를 지켜주며 한 뼘 더 성장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전개가 참신하고 주인공의 심리묘사와 사건이 발생해 전개해나가는 방식이 다른 작품보다 뛰어났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최종심사에서 동화의 특성에 부합하는 이영미 씨의 작품을 심사위원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영미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항상 꿈꿔왔던 순간인데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있는 공모전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꽁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또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태동화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빛낼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 무엇’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범초 김재원 선생님, 김이랑 수필가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와 남편, 저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분들과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본국에서 치러지는 공모전에 도전하는 749만 재외동포들에게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국립생태원

인도네시아 박물관 헤리티지

"10세기 빼어난 황금 유물"

글 : 이수진 문예총 수석 부회장 / 박물관 해설사

큰 방패(Tameng)

18세기 동부 자바 마두라 / 금 / 지름 53 / 유물번호 E715b

크고 화려한 금으로 된 방패이다. 방패의 가운데는 꽃봉오리 장식이 사선, 점무늬 등과 함께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여섯개의 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잎과 줄기가 무성한 나무에 꽃봉오리, 앉아 있는 새, 사슴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방패의 가장자리에는 나뭇잎과 함께 꽃잎 문양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금으로 만들어진 방패는 전쟁에 사용되기 보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담배 통 (Tabacco Container)

발리 끌룽꿍 / 금 루비/ 길이 15 높이 6 / 유물번호 E786

몸체는 물고기 모양이고, 머리는 발리의 선의 상징인 바롱(barong)과 비슷한 형상이다.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는 장미 잎과 연꽃 잎으로 장식되어 있고, 뚜껑 역할을 한다. 몸통에 새긴 문양은 물고기 비늘이고, 끝 부분의 물고기 꼬리는 위로 향하고 있다. 얼굴 부위에 아홉 개의 루비로 장식되어 있다.

헌금 담는 용기(Lelancang)

18세기 발리 끌룽꿍 / 금 나무 페인트/ 높이 6.5 지름 22.5 / 유물번호E769/14831

발리 사람들이 의식을 행할 때 힌두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담았다. 발리 사람들은 금이 하늘로부터 왔고 금은 태양을, 은은 달과 별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이 용기는 세선세공(Filigran), 단조, 실랍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발리의 금속 공예는 자바, 인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인도 힌두교 설화 속의 신과 거인, 동물 및 넝쿨 식물을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구름과 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나무에 세밀한 꽃을 조각하고 밑 바닥 부분을 완성하였다. 이 용기는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금속 세공 장인이 만들었다.

담배갑 (Wadah Tembakau)

18세기 말 누사 뜽가라, 롬복/ 금 은 / 높이 11 길이 16.5 / 유물번호 E1026/7988

은으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담배갑이다. 잎담배의 재료인 시리 잎(daun sirih/betel leaf))과 향신료 등을 넣기 위한 용기로 은으로 몸체를 만들고, 금으로 덮개를 씌워 화려함을 더하여 주로 왕족이나 귀족층이 사용했다. 물고기는 생기있게 뜬 큰 눈과 다산을 상징하는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 등 부분의 덮개는 금으로 장식했고, 직사각형 모양에 이등변 삼각형이 수직으로 배치된 줄이 있는 툼팔(Tumpal) 장식의 경첩을 달아 몸통과 연결했다. 이 보관함은 의식에 사용되는 잎담배와 향신료 등을 보관하는 용기이다. 물고기 모양은 힌두교의 최고신 중에 하나인 비쉬누의 화신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진다.

(사진제공: 국립제주박물관)

2019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9.31.~ 11.3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루피아	달러
104	이지완 이사	PT. JIN YOUNG	14,000,000	
105	정제의 이사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4,000,000	
106	신호진 이사	PT. HANINDO EXPRESS UTAMA	14,000,000	
107	이진호 자문위원	PT. JIN YOUNG	14,000,000	
108	송판원 이사	PT. KORYE POLIMER	14,000,000	
109	김미희 이사	한인회 여성분과	14,000,000	
110	전용무 이사	PT. TRI WAY ASIA	14,000,000	
111	이한주 이사	PT. SAJI SEGAR LESTARI	14,000,000	
112	이철훈 이사	PT. INDO BOX UTAMA JAYA	14,000,000	

10월호 103번에 이어 게재

2019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 명	금액 (IDR)
148	이지완	300,000
149	정제의	300,000
150	신호진	300,000
151	이진호	300,000
152	송판원	300,000
153	김미희	300,000
154	김지연	600,000
155	이승학	300,000
156	전용무	300,000
157	이한주	300,000
158	이철훈	300,000
159	백현채	300,000
144	이기자	300,000
145	유한숙	300,000
146	허진경	300,000
147	방진학	300,000

10월호 147번에 이어 게재

ACG School Jakarta
KINDERGARTEN | PRIMARY | SECONDARY

유치원 프로그램

ACG School Jakarta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지하는
활동과 더불어 최고의 학습시작을 제공합니다.
8월부터 유치원2세반을 제공 할 수 있게되어 기쁘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62-21-2978 0200 | acgjkt@acgedu.com
jakarta.acgedu.com

Cambridge Assessment International Education
Cambridge International School
Member of inspired

INTERVIEW
DI JALAN

NO. 12

Pancoran 사람들

2019. 11

♫ 동네 주민 나들이 가는날

매년 2-3회 이렇게 애들과 함께 '피크닉' 을 갑니다. 오늘 참가자 60여명 모두 여기 살아요. 75번 시내버스 2대를 통채로 전세냈는데 오늘은 정기 노선을 벗어나 데뽁에 있는 워터파크 [Putri Duyung] 로 직행입니다.

시내버스 전세 비용이요? 톨, 벤신 다 포함해서 한대당 60만 루피아라 나누어 내면 큰 부담 아니고요. 각자 싸간 점심을 맛있게 나누어 먹지요. 보세요~ 애들이 아주 신났어요!

엄마들만 따라가고 아빠들은 오늘 하루 푸~욱 잘 쉬거예요. 아침 7시 출발해서 오후 3시쯤 귀가하는데 어떻게 제시간에 모두 다 나왔네요. 이제 더 물어볼거 없지요?
자 ~ 애들아 모두 출발 호호호 ~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 연 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
9월 26일 SCBD로 확장 이전

주소: Gedung Artha Graha
Lt.6 Suite 8 SCBD
Jl. Jend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Telp. +6221 5140 1591 / 1592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 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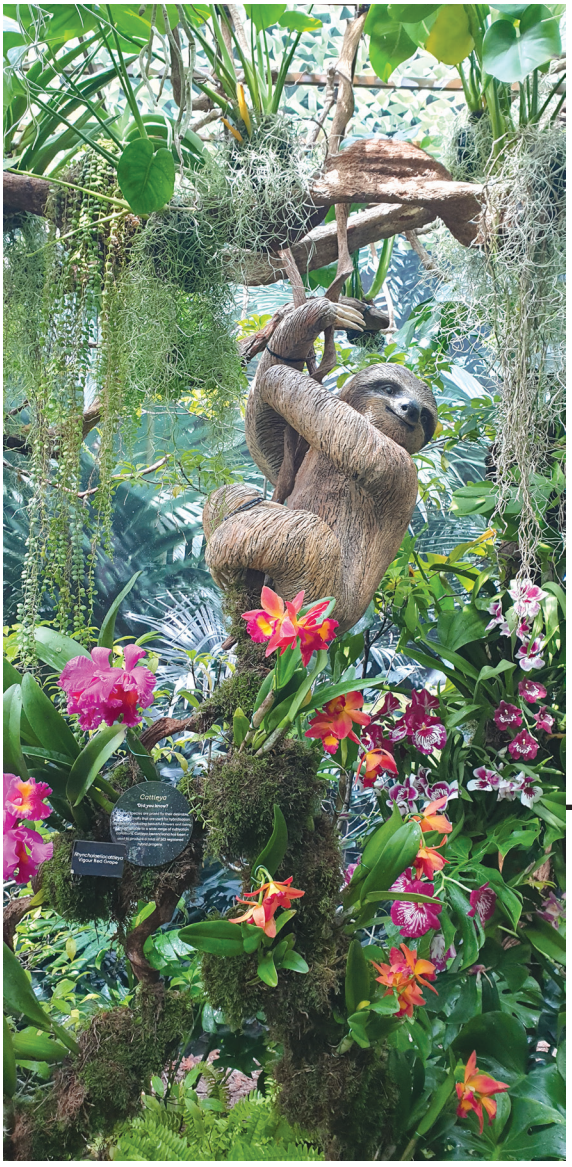
2019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 서협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박준희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김종규 0815 1059 8392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김영희 0815 181 3102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편집 후기

편집장 홍석영

얼마 전 뉴스에서 음원사재기(사람을 고용해 특정 가수의 음원을 돌려서 음원관련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란 말을 듣고 내가 참 옛날 사람인가보다!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사재기' 의 뜻을 매점매석과 동일시했던 저는 내용은 남아서 다르게 쓰이는 이 단어가 흥미로웠습니다.

판을 선점해서 기회를 사고 무엇이든 값을 올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덩치가 크면 무섭다는 것과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힘을 쓴다는 것이 새로울 리도 없지만 기회도 경험도 사재기하는 것이 스펙이라고 한 어느 청년의 말이 떠올라 한해를 보내는 저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www.samtan.co.kr

SAMTAN

GLOBAL LEADING COMPANY IN RESOURCE & ENERGY